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보스톤 유권자 2020 대선 관심사 헬스케어, 이민, 일자리와 경제

민주당은 헬스케어와 경제, 공화당은 이민과 경제 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20년 대선에서 보스톤 광역구 지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는 헬스케어, 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이민문제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들의 경마식 보도를 회피하고자 공영 라디오 WBUR이 매스잉크 여론조사 그룹(MassINC Polling Group)에 의뢰해 보스톤 및 남부 뉴햄프셔 600여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8월 조사한 것에 따르면 헬스케어 문제는 진보 보수 중도 진영 전체에서 중요한 문제로 꼽혔다.

특히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 헬스케어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중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이란 헬스케어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샌더스 후보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며 결코 특권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2020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민주	공화	무소속
헬스케어	70%	44%	65%
일자리, 경제	62%	58%	58%
이민	53%	63%	52%
소셜시큐리티	58%	39%	53%
기후변화	58%	15%	40%
총기규제	50%	21%	41%
트럼프퇴진	61%	6%	30%
인종차별	46%	16%	25%

자료 WBUR/MassINC

대선을 정책 선거로 이끌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샌더스 후보의 메디케어포올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후보를 비롯해 다른 민주당 후보들

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보완 강화해 일반인들의 선택을 늘리도록 하는 건강보험안을 선호하고 있다. 보스톤 뿐만 아니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문제도 바로 이 헬스케어 이슈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헬스케어 이슈 외에도 경제와 일자리,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이민, 기후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공화당 유권자들은 민주당 유권자들과 우선순위에서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유권자들이 여러 사회 경제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 반면 공화당 유권자들은 가장 큰 두가지 이슈 즉 이민과 경제에만 지대한 관심을 쏟았다.

이민과 경제는 트럼프가 집권 내내 언급했던 주요 이슈다. 트럼프는 집권 전반에 걸쳐 자신이 가장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며 미국 경제가 최고의 호황이라고 언급했으며 동시에 미국의 모든 문제점의 시작이 마치 이민자들로부터 시작 되는 듯한 언급을 하며 이



K-클래식, 한국 역사와 문화 알린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사단법인 라메르에릴(La Mer et L'Île 바다와 섬)과 공동으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 음악회를 9월 14일 토요일 저녁 7시30분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홀(Jordan Hall)에서 개최한다.

주보스톤총영사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 공연은 전석 초대 공연으로서 매사추세츠한인회에 참석을 신청하면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라메르에릴의 예술가들은 성악과 기악 등 음악, 미술 및 시가 함께 하며, 특히 국악기와 서양악기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K-클래식 공연으로 한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알려왔다. 이번 보스톤 공연에서는 >3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우리, 친구해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OPEN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 ID를 검색하여
플러스친구로 등록해주세요!

✓ 1:1 실시간 맞춤 상담
✓ 항공권 특가정보 및 여행소식 알림

ID: IACE TRAVEL

IACE TRAVEL
866.619.4223

본요일 근무일 안함 / BANK HPM EST / 주말·공휴일 휴업

Newstar JB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콘도·비즈니스·빌딩·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Premier Realty Group

●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 제이슨 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 아이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가을 학기 앞두고 한국학교 교사들 실력 가다듬기

NE지역 한국학교 교사 코칭을 위한 연수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각 한국학교의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사들의 실력을 최종 도약시키고자 하는 정기 연수회가 『교사 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 코칭』이란 제목으로 9월 7일 개최됐다.

재미 한국학교 NE지역협의회(NAKS-NE Chapter, 이하 협의회)의 주최로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에서 열린 교사연수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12개 한국학교에서 약 1백여명의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참여해 각 학교의 가을학기를 알차게 준비하려는 열의를 선보였다.

이날 연수회에 참가한 한국학교는 내슈아한마음, 뉴잉글랜드, 밀알한국, 보스톤장로교회, 보스톤한국, 보스톤 감리교회, 보스톤중앙, 보스톤천주교, 북부보스톤, 애머스트한국, 우스터한국, 푸르피한글학교였다.

연수회 전체강연인 첫번째 강연에서 윤자영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나는 함께 공부한다-3분의 1, 3분 2, 10분의 1 법칙'이란 제목으로 난독증처럼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에 대해 접근하는 교사의 열

린 자세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흥'이란 글자를 일반 학생들은 흥이라고 읽지만 난독증인 학생들의 경우 "ㅎ ㅎ"으로 다르게 읽는다. 사물을 다르게 보는 눈은 오히려 좋은 장점인 반면 얼핏 잘못하면 '문제아'로 취급할 수도 있다. 윤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강의로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대하는 좋은 자세를 지적해 참석한 교사들의 열띤 박수를 받았다.

이어 분반강의-1부에서는 정진희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기초과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수업 방안에 대해, 김영순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종이접지!'란 제목으로 한글교육과의 접목에 대해서 강의했다. 분반강의-2부에서는 홍순주 강사(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교안작성의 올바른 준비와 수업에의 활용'이란 제목으로 기초, 초급과정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열렸고 이지훈 강사(NAKS-NE협의회 웹메스터)는 '멀티미디어 수업에 활용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날 연수회와 함께



9월 7일 뉴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교사 실력 향상을 위한 코칭 정기 교사연수회가 열렸다. 정기연수회에 참가한 교사들과 내외빈

다양한 교재를 전시하여 참가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가졌다.

한편, 강의에 앞선 연수회 개최식에서는 협의회 김소희 총무의 사회와 윤미아 협의회 이사장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이현우 신임 부총영사는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2세들의 한글 및 역사와 문화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각 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영유권 관련하여 동해병기문제와 독도영유권 수호 등 중요한 주권에 관한 교육에 관해서 특히 동포 2세들에게 교육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오는 10월 1일에 개최되는 국경일 행사와 지역의 각종 가을행사에도

많은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NE시민협회 이경혜 회장은 후원금 전달식을 가진 후 "저도 이번 연수회에 끝까지 자리하여 같이 연수를 받을 각오로 연수회에 참석했다."라고 말하고 "언어의 중요성과 언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역할을 바로 여러분이 맡아 주시니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서 민주평통 한선우 회장, 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은 교사연수회 개최를 축하하며 후원금 전달 및 각 단체의 행사 안내와 협의회 각 학교에서의 참여를 부탁했다.

협의회는 자녀들을 둔 교사들을 위해 보조교사들의 지도하에 놀이방과

만들기방을 열어 부모가 자녀 걱정없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학생들은 교사연수회에 참가해 강의도 듣고 봉사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는 다음 행사로 오는 12월 7일(토)에 제 18회 뉴잉글랜드지역 동요합창제를 개최하며 장소는 보스톤한인교회 본당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직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지역의 한국학교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문의하거나 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ne.org를 방문하면 된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회장 남일 (508) 523-5389 korean-school.ne@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국악의 또 다른 가을 외출

국악재즈연구소와 세계문화연구소 주관 국악 칸타타 프로젝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한국에서만 머물던 국악의 바깥 출입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들어 여러 가지 서양 예술 장르와 만남을 즐기고 있는 국악이 이번엔 칸타타 그리고 재즈 오케스트라와의 만남을 갖는다.

국악 연주자들과 재즈 연주자들이 모인 국제국악재즈연구소(IGJI - International Gugak Jazz Institute)는 뉴잉글랜드음악원(NEC)의 세계문화연구소(Intercultural Institute at NEC)의 주관으로 판소리 칸타타 프로젝트를 10월 초 공연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뉴잉글랜드음악원(NEC) 출신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조미나 씨가 작곡한 판소리 칸타타 길령전을 초연하고 관련 워크숍을 여러 대학에서 개최한다.

판소리 칸타타 길령전은 재즈학과 학과장 켈 샤퍼스트(Ken Schaphorst)의 지휘와 국악재즈 소사이어티 (고수: 김인수, 소리: 이나래, 피리/태평소: 이나연, 가야금: 김도연) 그리고 NEC Jazz Composers' Workshop Orchestra와의 협연으로 10월 8일 저녁 8시 NEC 브라운홀(Brown Hall)에서 초연된다. 이 콘서트는 무료다.

NEC에서 재즈학-작곡 및 뮤지컬로지로 박사과정을 마친 작곡가 조미나 씨는 “서양의 칸타타, 재즈 오케스트라, 그리고 판소리의 새로운 만남이 굉장히 흥미롭고 ‘예수의 수난’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풀어내는 길령이라는 작품



국악 연주자들과 재즈 연주자들이 모인 국제국악재즈연구소(IGJI - International Gugak Jazz Institute)는 뉴잉글랜드음악원(NEC)의 세계문화연구소(Intercultural Institute at NEC)의 주관으로 판소리 칸타타 프로젝트를 10월 초 공연한다

의 인물의 이야기를 보스톤에 계시는 한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고 밝혔다.

주최측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펀드레이징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작품과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이 영문과 한글로 작성되어 있다.

<https://www.kickstarter.com/projects/igji/igji-pansori-cantata-project/?ref=kicktraq>
editor@bostonkorea.com

K-클래식, 한국 역사와 문화 알린다

▶▶ 1면에 이어서

작곡가 이정면이 3.1운동 당시 목포정명여학교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주제로 만든 ‘해금과 현악4중주를 위한 목포의 눈물’과 작곡가 임준희가 시인 최정례의 시 ‘스스로 오롯이를 소재로 작곡한’ 소프라노, 해금, 대금과 현악3중주를 위한 독도환타지 ‘가 연주된다. 이와 함께 최영섭의 ‘그리운 금강산’과 바르토크의 피아노5중주, 글라주노프의’ 5개의 소품 ‘등이 연주된다. 이 공연에는 음악감독/바이올리니스트 최연우, 바이올린 최규정, 비올라 이희영, 첼로 김대준, 피아노 오윤주, 소프라노 한경성, 해금 고수영, 대금 박명규가 출연하며, 해설은 비올리니스트 이희영이 우리 말과 영어로 진행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인 라메르에릴은 음악, 미술, 시 등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K-클래식의 대표 단체다. 이 공연 전후 9.12 캐나다 토론토, 9.17 미국 뉴욕, 11.2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순회/초청 공연을 가진다. 라메르에릴 이항준 이사장은 “음악, 미술, 시가 함께하는 K-클래식으로 우리의 자연,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문의 이영애 부회장
yonglee68@gmail.com
bostonkorean@hotmail.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 Plus Fall Schedule 2019

Saturdays Starting 9/7/19

Class	Time
PSAT/SAT I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I Read. Comp / Writing	11:30 AM – 1:00 PM
SAT I MATH	1:30 PM – 3:00 PM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동부말뇌염 주 3명 더 감염, 벌링턴서도 뇌염모기 발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이번주 3명의 동부말뇌염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매사추세츠주 보건부(DPH)는 미들섹스카운티 동남부에 거주하는 70대 남성 및 18세의 여성 그리고 오스터카운티의 60대 여성의 동부말뇌염 감염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보건부는 애실랜드, 호프데일, 밀포드, 프레밍햄, 말보로, 노스보로 그리고 서드베리 지역의 위험수준을 심각으로 높였으며 벨링햄과 블랙스톤, 밀빌, 베틀린, 보일스톤, 허드슨, 메이나드, 스토우 그리고 웨일랜드의 위험수준을 높음으로 격상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내 36개 타운이 심각상태, 42개 타운이 높음, 그리고 115개 타운이 보통 수준으로 설정됐다. 특히 벌링턴 타운 보건부는 타운내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동부말뇌염 모기와 웨

스트나일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동부말뇌염은 총 7명의 인간 감염, 그리고 9건의 동물 감염을 일으키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주 전역에서 400마리의 동부말뇌염모기가 채집됐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져 모기 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지만 9월 말까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하므로 각별한 모기 방제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건부 관계자는 전했다.

주 보건부 캐서린 브라운 박사는 “차가운 날씨로 모기 개체수는 감소하겠지만 EEE의 위험은 첫 서리가 내릴 때까지가 아니라 아주 강 서리가 내려야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MA주 동부말뇌염모기 위협 속 웨스트 나일 환자도 발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동부말뇌염(EEE) 모기의 위협에 이어 첫 웨스트나일바이러스(WNV) 감염 환자도 발생했다.

주 보건부(DPH)는 12일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웨스트나일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확인했다. 이 남성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아직 상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9건의 감염 환자가 발생했지만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감기 증상을 보이며 아주 드물게 심각한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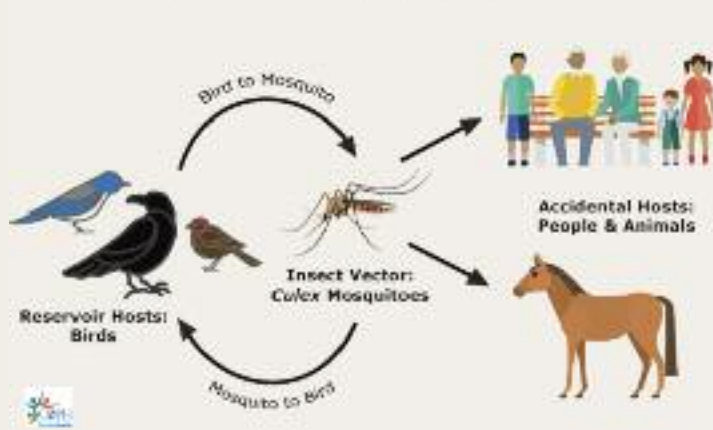
증을 유발한다. 웨스트나일은 주로 50대 이상의 경우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한다.

올해 들어 동부말뇌염 환자도 5세 여아를 비롯 총 7명이 발생했다. 치명적인 동부말뇌염은 아직도 여전히 매사추세츠 주민들의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다.

모니카 바렐 매사추세츠 보건부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 전역은 아직도 동부말뇌염의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West Nile Virus Transmission Cycle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ungDuck Lee
앤드류괵 Andrew Koak
앤젤라럼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저렴한 금액으로 집앞까지

보스톤과 뉴욕 간 라이드 서비스

2인 여행시
1인당 \$75로 할인
프로모션 코드:
BOKOREA



원하시는 장소에서 픽업 및 드랍오프

최신 메르세데스 벤츠 밴으로 편안한 여행

WIFI, 테이블, 사물함, 안락한 의자, 전기콘센트, 독서등 등이 완비
프로모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1 833 743 7746
www.gosherpa.net



노스 앤도버 다문화 선교회에서 4일 열린 9월 첫째주 사랑방 모임에서 김용현 총영사가 축사를 건네고 있다

시민협회 식사 후원한 가을 첫 사랑방 모임

김 총영사 내외 및 시민협회 회장단도 방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여름 한달 잠시 휴지기를 가졌던 보스톤 한미노인회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과 셋째주 수요일 사랑방 모임을 다시 시작했다.

총 85명이 참가한 9월 4일 첫째주 사랑방모임은 시민협회가 한미노인회 회원들에게 식사를 후원했다. 이번 첫째주 사랑방 모임에는 김용현 주보스톤 총영사 내외와 이경혜 시민협회장 및 임원단이 함께 참여해 한미노인회의 봉사자들이 만든 음식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용현 총영사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의 모임은 흔치 않은데 정말 보기 좋다 항상 건강하시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되셨으면 한다” 고 말하고 한미노인회의 봉사자들의 노고와 시민협회 회장단의 노인회 식사 후원을 격려했다.

김 총영사는 특히 “다가오는 많은 한인 행사에 같이 동참하며 우리가 한국사람임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한국을 주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이경혜 시민협회장은 “즐거워하시

는 한미노인회 회원 분들을 보니 너무 행복하다” 며 건강한 삶을 기원했다. 이회장은 “10월 9일 주청사에서 한인의 날을 개최한다” 며 “모든 한인들이 참가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 달라” 고 당부했다.

윤철호 한미노인회 회장은 “한미노인회를 방문해 주신 주 보스톤총영사님 부부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시민 협회 이경혜 회장님 및 임원진들께서도 한미노인회에 관심을 주시고 한미노인회분들께 식사대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고마움을 표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한국사랑회 안보 토론회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국사랑회와 재향군인회는 9.28 서울 수복을 기념하여 안보토론회를 9월 28일(토요일) 매사추세츠 한인회관에서 개최한다.

보스톤 한국사랑회 이강원 회장은 “현재 모국인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과 안보에 관한 국민들의 좌, 우 갈등과 분열에 대하여 그 원인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하여 토론” 하고

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사랑회 및 재향군인회 회원들과 관심 있는 한인들에게 개방된다. 자세한 문의는 이강원 회장(339-227-2470)에게 할 수 있다.

일시: 2019년 9월 28일(토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장소: 매사추세츠 한인회관(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가을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뉴햄프셔에 위치한 마운틴캐논, 프랭코니아노치(MT. CANNON, FRANCONIA NOTCH) 지역으로 9월 21일 토요일 정기산행을 떠난다.

트레일은 왕복 6.9마일이며 산행 시간은 4시간 반, 난이도는 3.5 보통이다 참가비는 \$20이며 참가신청 마감은 9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등산 당일 집결은 뉴햄프셔 샬럼 93번 2번출구 파크앤라이드에는 오전 7시까지 해야 한다.

준비물은 등산복, 등산화, 모자, 배낭, 중식, 등산용 스틱, 물 1.5리터



등이다. 정상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 변화가 심하니 장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자켓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617-780-9588 (들꽃향기)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9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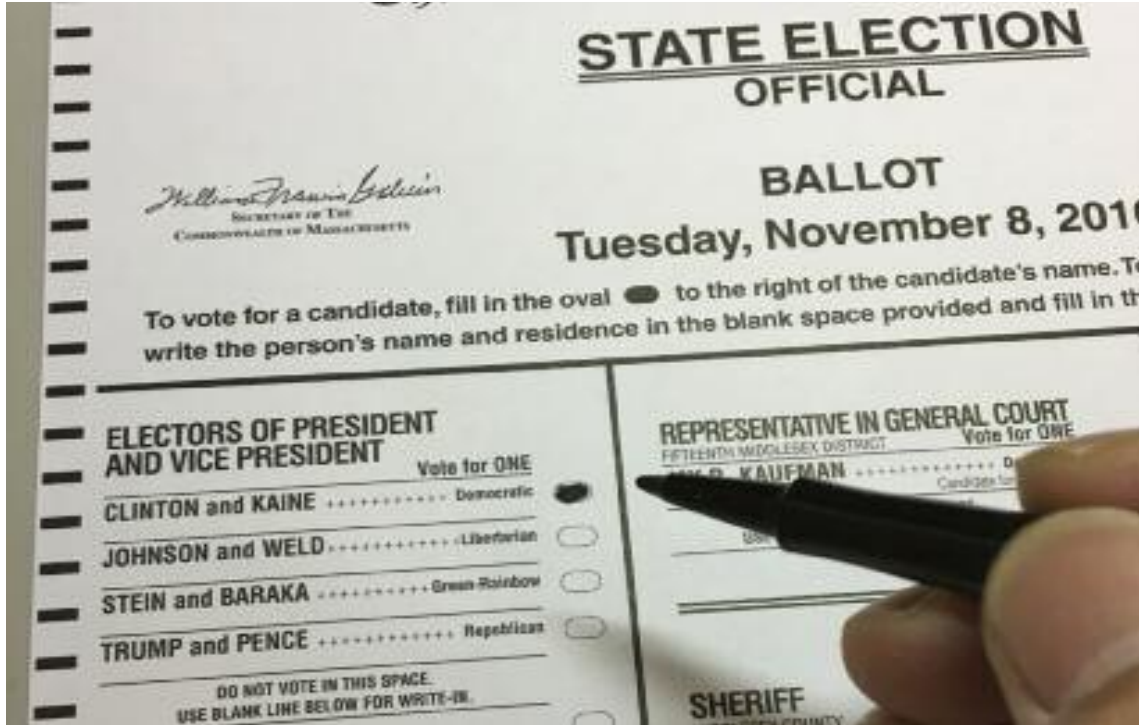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2016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고 있는 한 유권자

보스톤 유권자 가장 큰 관심사 헬스케어, 이민, 일자리

▶▶1면에 이어서

민자는 곧 불법 이민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트럼프 임기 후반기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그의 무역 전쟁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8%로 떨어지게 된 이유다.

트럼프의 최대 업적은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다. 미 공영라디오와 인터뷰한 조 로마노 씨는 “이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닌 정서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고 밝혔다. 로마노 씨는 “이 나라는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 라며 이민에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민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이민했다. 현재 우리는 참전용사들에게는 응분의 대우를 해주지 않고 흡사하게 만들고 있는 반면 불법 이민자들에게 (복지혜택에) 우선

순위를 주고 있다. 그게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

로마노의 씨는 정확한 정보와 사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실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광고한 허위 정보와 정서법에 근거해 발언하고 있다. 미 언론들도 상당수가 같은 편견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에 여러 차례 “미 퇴역군인들은 불법이민자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워싱턴포스트 팩트체크에서 명백한 거짓임이 분명하게 지적됐지만 한 번 거짓 뉴스에 현혹된 정보는 로마노 씨의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불법이민자는 소셜시큐리티 혜택이나 다른 복지혜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부 위조 소셜시큐리티를 사용한 이민자들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이에 반해 퇴역군인인 베테랑들에게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각종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유권자의 다수가 케이블 TV 뉴스(65%)와 지역 TV 뉴스(57%)를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가족, 친구 등 주변인(45%)을 통한다고 답한 반면 각 지역 신문(44%)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만큼 자세한 정보를 분석적으로 얻을 기회가 적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민주당 유권자들도 이민이 아주 중요 이슈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민자들 권리측면에서 이민개혁을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이민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민을 두고 양측의 충돌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ditor@bostonkorea.com



개학을 앞두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임선희)가 2019학년도 신입생들에게 학교 및 학사일정 안내와 학급을 배정하는 1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학을 앞두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임선희)가 2019학년도 신입생들에게 학교 및 학사일정 안내와 학급을 배정하는 1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뉴턴에 위치한 지역 최대 한국학교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9월 21일 전교생 가을학기 개학을 준비하며 9월 14일 토요일 오전에는 미리 예약한 신입생에 한하여 2차 소집행사를 갖는다.

남일 교장은 “병아리반(기초준비) 및 세종1(사과반) 세종2(포도반) 등 이미 등록마감이 된 학급들을 제외하고 선착순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며 아직도 원하는 학부모들은 한국학교에 등록할 수 있음을 밝혔다.

뉴턴에 위치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50개의 오전 & 오후 특별교육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준비반(병아리반)부터 성인반까지 수업을 매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2세들의 교육을 맡는 교사회는 기초준비반 & 1~2과정(김희현

리더), 기초3~4과정(이성희 리더), 초급1~3과정(주민정 리더), 중급1~3과정(김소희 리더), 고급1~3과정(김영순 리더), 이중언어1~8과정(조정현 리더), 작문교육1~3부(이정설 리더), 문화교육부(윤지영 리더)와 소속 과정 60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전에는 2세들을 위한 한글과 문화교육, 그리고 작문·음악·서예·사물놀이·한국무용·중·고교실이 진행된다. 무료인 성인1~2반(한글교육)·성인3반(영어교육), 성인 서예반 등도 있다. 오후에는 태권도, 미술반, 발레반 및 서예반 수업이 특별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한글은 물론 음악·미술 등 문화교육을 위해 함께 동참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남일 교장 (508-523-5389, ksneusa-@verizon.net)에게 할 수 있다.

1. 신입생 2차 소집일: 2019년 9월 21일(토) 오전 8시 40분 (RM126)
 2. 학교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애플, 안되는 혁신 보다는 가격 낮췄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애플이 9월 신제품 발표에서 어려운 혁신에 메달리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술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가격을 낮추는 아이디어를 선택했다.

애플은 10일 캘리포니아주 쿠파티노 스티브잡스극장에서 신형 아이폰11과 아이폰11 프로, 아이폰11 프로 맥스를 공개했다. 기존 아이폰XR을 대체하는 아이폰11의 경우 \$50을 뺀 \$699의 가격을 책정했다. 아이폰11 프로는 \$999, 아이폰11 프로 맥스는 \$1099이다. 13일부터 사전예약을 받으며 20일부터 공식 판매한다.

이번 신제품 발표회는 상당 부분 아이폰 소개에 맞춰지만 새로운 서비스도 소개하며 애플의 향후 사업방향을 가능케 했다. 애플은 새로운 게임 서비스인 아케이드(Arcade)와 TV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TV플러스(Apple TV Plus)를 새로 출시하며 게임 시장과 스트리밍 시장에 뛰어 들었다. TV서비스에선 넷플릭스, 디즈니, AT&T, 아마존 등에 내주고 있는 스트리밍 시장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출사표다. 두 서비스 모두 월 \$4.99이다.

애플의 아이폰 전략도 흥미롭다. 지난해 아이폰 XS리리즈 출시 이후 아이폰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던 점을 이번 신제품 출시에 적극 반영했다. 카메라, 프로세서, OLED 개선에 집중하고 가격은 오히려 낮췄다.

올해 아이폰 11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카메라다. 아이폰11 프로와 아이폰11 프로 맥스는 아이폰 뒷면에 3개의 12메가픽셀(12MP) 카메라를 탑재했다. 이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 세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운 초광각 카메라는 4배 더 넓은 장면을 담을 수 있도록 한다. 야간 모드도 새롭게 추가됐다.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노이즈는 줄여주고 색상은 자연스럽게, 사진은 밝게 만들어준다.

애플은 카메라에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 처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울기를 중 적용될 '딥 퓨전' 기능은 아이폰에 탑재된 엔진을 통해 사진을 픽셀 단위로 처리하고 사진의 질감과 디테일, 노이즈를 최적화해준다. 사진을 찍는 순간 광각, 초광각, 망원 3가지 카메라에서 동시에 촬영한 9장의 사진을 분석해 각각의 사진에서 최상의 요소를 뽑아 가장 좋은 사진 한 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이 같은 AI를 통한 빠른 이미지 이미지 처리를 위해 아이폰11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A13 바이오닉이다. A12 대비 최대 20% 성능을 개선했다. 실시간 사진·비디오 분석을 위한 신경망 엔진과 초당 1초 이상 연산을 처리하는 머신러닝 성능을 갖췄다.

아이폰 프로는 초당 60프레임의 4K 비디오 촬영도 가능토록 했다. 필름믹

프로(Filmic Pro)란 앱은 3개의 뒷면 카메라와 1개의 전면 카메라 모두의 비디오 스트림을 한꺼번에 보여주며 이중 2개의 비디오 스트림 촬영을 동시에 녹화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바로 전화기에서 편집까지 가능토록 하는 강력한 기능까지 제공한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 또는 유튜브 생산자 등에게는 굳이 카메라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아이폰 11프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논, 니콘 등 카메라 생산업체에는 향후 카메라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1,000대의 아이폰을 구입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지만 이 같은 카메라 기능으로 인해 이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애플은 좋은 트레이드인(trade-in)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존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좋은 상태의 아이폰 X 또는 아이폰 8플러스를 트레이드인 하는 경우 \$600로(24개월 할부시 \$24.95/월)로 할인해준다.

이외에 아이폰 OLED 패널은 새롭게 개선했다. 1200니트 밝기, 2백만 대 1의 명암비를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이 15% 향상됐다. 훨씬 강화된 유리로 충격에도 더 강해졌고 방수기능도 향상됐다. 배터리 수명은 각각 아이폰XS보다 4시간, 아이폰XS 맥스보다 5시간 늘었다.

hsb@bostonkorea.com

“검사는 방면, 판사는 노” 판사와 검사 역할 뒤바뀐 보스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스트레이트프라이드퍼레이드” 항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사는 관용을 판사는 엄벌을 주장, 서로 뒤바뀐 역할이 논란이 됐다.

보스톤을 관할하는 서퍽카운티 지검 검사는 성소수자들의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조종하는 극우단체의 스트레이트프라이드퍼레이드 집회에 강력히 항의하다 보스톤경찰에 체포돼 기소된 이들에게 보석 없이 방면해줄 것을 9월 3일 판사에게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보스톤 지법 리처드 신넛(Richard Sinnott) 판사는 검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듭 관용 방면을 거부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가 처벌을 원하는 구형을 판사가 이들의 구형을 감면하는 법정의 장면과 완벽히 뒤바뀐 상황이었다.

보스톤글로벌은 이 같은 장면은 최근 개혁적인 레이첼 톨린스 검사장이 당선된 이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레이첼 톨린스 검사장은 취임 이후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레이첼 톨린스 검사장은 “판사는 제1수정헌법 조항인 개인의 항의권 행사를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항의시위자 중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중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폭력 시위범들과 일반 시위자들의 구분을 요구했다.

톨린스 검사장은 “폭력 전과가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의 경우 판사의 과다한 개입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넛 판사는 3일 총 16명의 기소자 중 무질서한 행동 혐의의 6세의 버몬트 여성, 무질서 행동 및 체포 방해 혐의의 21세의 우스터 남성의 기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기소 대신 8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나머지 7명에 대한 검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대한 공갈 및 폭력 행위 혐의를 각하하지 않았다.

극우단체의 스트레이트프라이드퍼레이드 집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약 600여명의 항의자들이 모여 카플리스퀘어에서 시티홀 플라자까지 1마일 구간에서 야유를 퍼부었다.

이 퍼레이드는 극우단체 레지스트 암시즘의 산하인 슈퍼해피퍼레이드 메리카(Super Happy Fun America Parade)가 조직한 것이다. 이 그룹은 2017년 백인 극우그룹이 참여했던 “표현의자유” 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퍼레이드가 끝나자 항의자들은 이 퍼레이드를 에스코트한 경찰에 분노를 표했다. 경찰은 이들을 해산키 위해 이들에게 접근하면서 페이스 스프레이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36명이 체포되고 경찰도 4명이나 부상당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맥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공연 프리뷰>

국악명인과 발레리나, 첼리스트 한자리에, 흔치 않은 기회 무용과 국악 축제를 기다리며 - 주디스 아이센버그

(원제: A Wild Goose Flying in the Sky - Gugak from Korea)

이 글은 주디스 아이센버그(Judith Eissenberg) 교수가 보스톤 지역의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는 저널 및 블로그 <더 보스톤 뮤지컬 인텔리전서(The Boston Musical Intelligence)>에 기고한 것을 발췌, 번역한 것이다.

아이센버그 교수는 국제적인 명성을 쌓은 리디안 켈렛의 설립자이며 제2바이올린 주자로,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세계음악(World Music)과 실내악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한 보스톤

컨서버토리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국악을 일반 한국인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음악적 감수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다소 긴 글이지만 시간을 갖고 자세히 읽다 보면 국악에 대한 지식들이

속 머리에 들어와 앉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땅에서 발레, 판소리, 가야금, 아쟁, 첼로 이런 악기들의 조합으로 한국인의 정서에 꼭 빠져볼 기회는 그리 흔치 않다. (편집자 주)



주디스 아이센버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보스톤 발레의 주역 댄서, 한국 무형문화재 제 23호 (주: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후보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드는 첼리스트, 판소리를 부르는 소리꾼, 그리고 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공연!

이것은 바로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9월 29일(일) 오후 3시에 조던 홀에서 개최하는 “무용과 국악 축제(Festival of Dance and Gugak)”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는 이 공연이 2019년의 가장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며 화려한 무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한국의 전통 음악인 국악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고전(classical) 음악 중 하나이다(그 외 다른 고전 음악의 예는 마이클 처치(Michael Church)가 쓴 “The Other Classical Musics: Five Great Traditions”를 참고하기 바란다). 어떤 종류의 고전 음악이든 시대를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 들어본다면 인류가 창작해 낸 놀라운 음의 세계에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신적인 존재와의 연결이요, 둘째는 바로 인간들 사이의 연결이다. 이는 고전 음악에 대한 나의 진심된 견해이며, 또한 국악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의 고전 음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궁정 음악 전통에서 비롯된 한 종류와, 다양한 평민들의 삶을 반영하며 각 지역의 가치와 정서가 배어있는 또 다른 종류에서 발전되어 왔다. 국악은 복잡하고도 표현이 다양한 무속 음악에서도 영향을 받았으며, 국악의 장르에는 민속악에서 발전되어 온 판소리(소리꾼과 고수가 풀어나는 이야기), 산조(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와 북의 앙상블), 시나위(축흥 기악 음악) 등이 포함된다. 궁중 음악 또는 양반 음악 장르는 제례적(ritual)또는 비제례적 맥락을 뛰어넘으며, 시적인 언어와 함께 공식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민속악과 정악 모두에서 춤은 언제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는데, 우리는 이 콘서트에서 이러한 전통의 일부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을 그다지 좋아하거나 믿지 않는다. 영어가 만국 공통어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세계의 음악은 매우 매우 독특한 사운드들의 집합체이며, 각각의 음악에는 문화적, 사회적 및 개인적 가치와 미학이 내재되어 있다. 음악을 통해 사람들은 독자성을 듣고, 역사를 들으며, 무엇보다도 이야기(stories)를 듣게 된다. 우리는 오는 9월 29일, 이 시대에 가장 표현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으며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들을 통해 전달되는 한국적인 정서(Korean ethos)에 꼭 빠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악의 사운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판소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자. 고통과 실망에서부터 사랑, 기쁨, 용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상황이 노래를 통해 설명된다. 소리꾼들은 우렁찬 소리를 얻기 위해, 그리고 서정적인 표현부터 찢어지는 음색까지 다양한 음색을 갖추기 위해 폭포를 찾아가서 몇 년씩 수련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구전된 이야기들은 한편으로는 조선이 추구한 유교적 가치를 >>9면으로 계속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조성된 상품 가격 (\$월 1일부터, 무료영하는 6월부터 편당 1달러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틀/총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틀/총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	--	---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영어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가족방송) / ETN / 벵쿠TV / 이벵트TV / KTV / 우리방송

▶▶8면에 이어서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냉혹한 현실 상황을 말하기도 했다.

랩이나 록 음악, 또는 독일 가곡(Lieder)이 완전히 다른 음악적 언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거기에 연주자와 청중의 심장 박동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즉흥적인 북소리(장단)를 추가해 보라. 북을 치는 이(고수)는 단순한 반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리꾼을 이끌고, 자극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영감을 준다. 그리고 소리꾼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함께 펼치며,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해석된 엄청난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이 놀라운 미니멀리스트 오페라는 청중이 판 생각을 할 틈 없이 집중하게 만든다.

거친 음색과 뛰어난 해석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다수의 상을 수상한 소리꾼 임현빈은 이번 공연에서 심청가의 클라이맥스 부분(심봉사가 눈 뜨는 대목)을 부를 예정이다. 대담하고도 흥미로운 행보를 이어온 핀란드 출신 미국 첼리스트인 카리 유셀라(Kari Jusela)가 여기에 합류하게 되며, 역시 다수의 수상 경력으로 인정받은 고수 김태영이 함께 한다. 이렇게 경계를 뛰어넘는 콜라보는 국악의 깊이와 폭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이다. 오래된 가치와 미학에 깊게 뿌리 내린 고전 음악은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용감한 시도를 통해 경험되고, 공유되고, 빌려주며, 뒤섞여서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전통이 현대적인 표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 전통이란 것도 한 때는 독특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산조는 한국의 남서쪽에 위치한 전라도의 민속 음악에서 발전한 기악 독주곡이다 (북으로 반주된다). 정교하게 발전한 이 민속 음악 역시 무속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 그 표현이 매우 다양

하며, 음을 꺾는 방식이 독특하고 다양한 아티클레이션과 조성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때는 매우 열정적이며 날카롭다가 어떤 때는 사색적인 소리의 움직임 보여준다. 두 개의 한자로 구성된 이름인 산조(散調)가 “흩어진 가락”이라는 뜻을 잘 표현해 준다. 반복되는 리듬의 사이클 위에 즉흥적인 분위기의 멜로디가 얹어져서 전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인도의 라가(raga)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탈라(tala) 사이클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좀더 추상적인 예로는, 모차르트가 어떻게 소나타 형식을 바탕으로 놓고 멜로디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이 날 이태백은 아쟁 산조를 연주할 예정인데, 그는 아쟁의 달인일 뿐 아니라 남도 무속, 북, 강산제 심청가(각각 무형문화재 72호, 5호, 34호)의 무형문화재 후보이다. 김태영은 장구로 반주를 하게 된다.

한국의 문화보존 시스템은 문화적 전통, 음악, 춤 등의 특정 종류를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왕조의 조상들을 위한 예식 음악인 종묘 제례악(14세기에 시작됨)이 1964년에 첫 번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 예식은 유교의 사당에서 진행되는 음악과 춤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예술가는 그들 자신이 국보(national treasure)가 된다. 예를 들면, 이태백은 세 가지 분야의 무형문화재 후보이며, 이지영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인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 부문의 후보자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화재를 전통 그대로 유지하려고만 하는 것은 전통이 살아남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지영의 활동과 작품을 존경하는 이유이다. 이지영은 과거의

전통에 대해서도 해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콜라보와 아방가르드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리더이다. 이지영과 그의 동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통해 국악의 영역을 확장하고 국악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국악의 한 쪽 뿌리인 ‘민속악’에 속하는 음악은 표현이 다양하고 감정적이며 역동적이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인다. 자제하거나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감정을 풀어놓으며, 일상의 고단함이나 어려움을 음악을 통해 발산시키며, 즐거움 또한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다. 반면, 또 다른 뿌리가 되는 ‘정악’은 예의를 지키며 우아하고 정적이다. 오래된 마을에서 느껴지는 지극히 정제된 분위기라고나 할까. 폭포수의 끊임없는 에너지대신,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와 그로 인해 잔잔하게 번져나가는 파문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대금 연주자 원완철의 연주에 대해 어떤 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낮으면서 부드럽고 깊이 있는 대금의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신비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내가 하늘을 나는 기러기처럼 느껴진다.” 원완철은 이번 공연에서 조선시대 성악 음악의 한 종류였던 ‘청성곡’의 멜로디를 주제로 한 바리예이션을 연주한다.

가장 대담한 시도는 명인 연주자이자 즉흥 연주자인 가야금 이지영과 장구 이태백이 함께 연주하는 순서에서 이루어진다. 보스턴 발레의 주역 무용수인 한서혜와 동발레단의 무용수인 마이클 라이언이 여기에 합류한다. 나는 이 콜라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저 상상을 해 볼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전통 무용은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것을 반복하는 종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 또한 균형 잡힌 정지 동작과 에너지



판소리 임현빈



한국무용 박전희

를 머금은 공중 동작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날아가는(해방되는) 느낌이 있다. 서양의 발레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전통 무용의 스텝은 발가락이나 발바닥이 아닌 뒷꿈치에서 시작된다. 움직일 때 뒷꿈치가 바닥을 부드럽게 스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작들은 어깨의 움직임과 합쳐져서 “고립된 포지션이 아닌, 모션에 대한 강조 - 정적인 가운데의 동적인 움직임”이라는 평을 받게 한다. 주디 반자일(Judy Van Zile)은 “한국 춤에 대한 견해”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감정의 긴장 - 감정의 화해 - 감정의 해방”의 세 가지 단계로 설명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나는 한서혜와 마이클 라이언의 춤이 산조에 대한 완전히 다른 예술적 반응을 가져오게 할지 어떨지 궁금해진다. 전통적인 연주와 아방가르드 콜라보 분야 모두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이지영의 명성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분명히 뛰어난 공동창작물이 나올 것임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전통 북춤인 ‘삼고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화려한 색채, 큰 움직임,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에너지의 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 줄 것이다. 왕실에서까지 공연되기는 했지만 이 춤은 본래 불교 전통과

민속적인 표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날 프로그램의 피날레로 아리랑이 포함된 남도 잡가가 연주된다. 아리랑은 비공식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노래이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날은 진도아리랑이 연주된다.


무대에서는 출연자들의 이름과 면면을 보면 모두 훌륭한 예술가로, 평생을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깊은 지식을 쌓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을 모두 조단할 무대에서 만나게 될 것이 몹시 기대된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나와 함께 그 자리를 즐겨주시면 좋겠다!

무용과 국악 축제 (Festival of Dance and Gugak)

일시: 2019년 9월 29일 (일) 오후 3시
장소: Jordan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공연 정보 및 티켓 구매: kcs-boston.org, (781) 223-4411

만 6세 이상 입장가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협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Mass Cultural Council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DRAIN & PLUMBING

확

막힌 곳을 뚫어드립니다



24/7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폴리머 시장 뇌물 수수 혐의 체포

마리화나 회사로부터 수십만 달러 작년부터 총 24개 혐의 조사 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제시엘 코리아 폴리머 시장(27세)이 지난 6일 체포되었다. 코레리아 시장은 마리화나 판매 회사들로부터 폴리머에서 마리화나 판매 허가를 위해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코레리아 시장은 4곳의 마리화나 판매 회사로부터 마리화나 판매점이 폴리머에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써주는 대가로 수십만 달러의 현금을 받았다. 폴리머는 보스톤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9만 명 남짓의 도시다. 시장의 편지는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6일 보스톤 연방 법원에 출석한 코레리아 시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였다. 코레리아 시장은 기자들에게 “나는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며 “내가 한 것이라고는 폴리머 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뿐이다. 나와 나의 직원들, 나의 팀원들 모두 우리 시의 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일만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코레리아 시장은 마리화나 회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 외에도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현금 3,900달러와 12,000달러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코레리아 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소유 중인 건물에 수도관을 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코레리아 시장은 폴리머 시장 내 상급 공무원에게 연봉(78,700달

리)의 절반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코레리아 시장은 폴리머 시청에서 공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이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코레리아 시장과 함께 코레리아 행정부에서 일을 한 4명의 직원도 뇌물 수수, 금품 갈취, 문서 위조, 위증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2015년에 폴리머 시장에 당선된 코레리아는 이미 작년 10월에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코레리아 시장은 기존의 13개 혐의와 올해 11개 혐의를 합쳐 총 24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jsi@bostonkorea.com



제시엘 코레리아 폴리머 시장(27세)이 지난 6일 체포되었다



보스톤 킨더가튼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축 계좌에 50달러가 입금된다

보스톤 킨더 학생 \$50 개학 선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보스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킨더가튼 학생들이 특별한 개학 선물을 받게 되었다. 킨더가튼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축 계좌에 50달러가 입금된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지난 9일, 보스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킨더가튼 학생들은 올해 9월부터 저축 계좌와 5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스톤 시에서 추진하는 보스톤 저축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학생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저축 계좌에 부모와 가족들이 추가로 예

금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족들의 추가 입금이 있을 경우 보스톤 시에서 최대 65달러를 추가로 해당 저축 계좌에 지원해준다.

이 저축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계좌의 주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등록금이나 취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5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2016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 보스톤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jsi@bostonkorea.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이용해보세요!

강남지인병원

GANGNAM GIE HOSPITAL

★ 미주, 캐나다 무료전화 (Call for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김수남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지인처럼 편하게, 지성으로 진료하는 강남지인병원

강남지인병원 건강검진센터는 대학병원, 다량건강검진센터에서 도입된 최신 혈액검사, 초음파, 126채널 CT 등 최신행 기술력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상진료와 연계되는 검사장비를 투입하여 실제 내 건강과 연관된 맞춤형 검사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남지인병원은 편안하고 안전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31 (논현동) 강남지인병원 (구 마산역동출) 대표번호 02-6965-4119 www.giehospital.co.kr

종합검진 기본항목

검사기본진료(신체계측등), 안과(안저,안압), 폐기능, 체성분, 심전도, 흉부촬영, 중앙표지자검사, 부인과검사(자궁, 유방), 혈액종합검사(70여가지), 소변검사, 구강검사등

휴람 당일검진 프로그램 → 53만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위내시경(수면), 초음파(갑상선, 상복부, 복부대동맥, 경동맥, 전립선(남), 유방(여), 좌복부(여), 뇌혈류) + 동맥경화검사, 스프레스-지대검사, 심장초음파, 흉부CT, 심장색도화CT, 생체이력검사

*1차(일)1인(2명) / 입원비용없는 세균 / 당일오후 4시 입원 - 당일 오후 12시까지

휴람 숙박검진 프로그램 → 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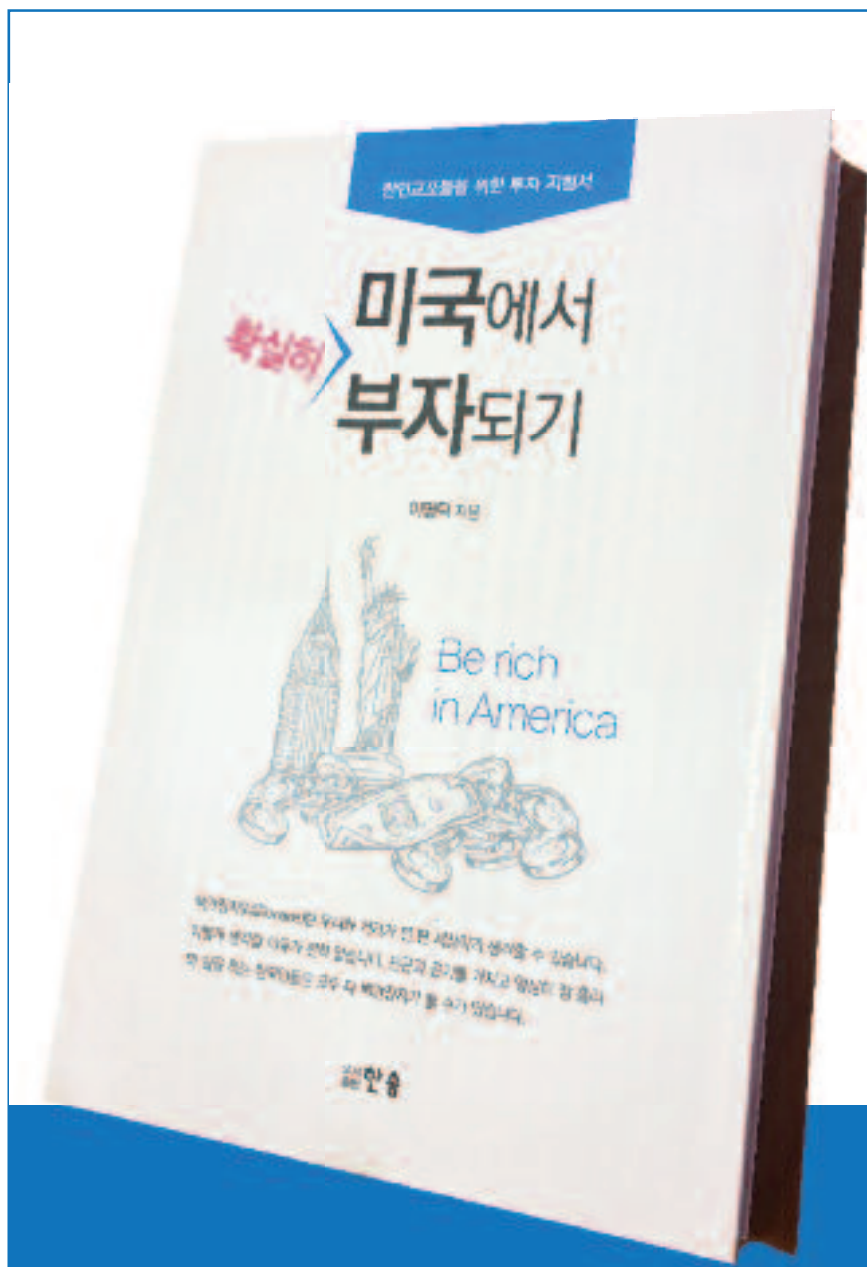
종합검진 기본항목+
위, 대장내시경(수면), 초음파(갑상선, 상복부, 복부대동맥, 경동맥, 전립선(남), 유방(여), 좌복부(여), 뇌혈류) + 동맥경화검사, 스프레스-지대검사, 심전도검사, 흉부CT, 심장색도화CT, 생체이력검사

*1차(일)1인(2명) / 입원비용없는 세균 / 당일오후 3시 입원 - 당일 오후 12시까지

휴람 정밀검진 프로그램 → 95만원

휴람 숙박검진 프로그램+
혈액검사 추가 + 복부CT(조영제 포함) + 관상동맥CT + 뇌MRI, 뇌MRA

*1차(일)1인(2명) / 입원비용없는 세균 / 당일오후 3시 입원 - 당일 오후 12시까지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

이명덕 박사의

미국에서 부자되기

절찬리에 판매중 **\$20**

백만장자(Millionaire)란
우리와 거리가 먼 판세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는 한국인들은
모두 다 백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617.955.9112**
bostonkorean@hotmai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일정만 준비하는 상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michael.lee@fairwaymc.com
mtgwithmike@gmail.com

2 Adams Place, Suite 410 Quincy, MA 02169

오바마케어 무력화 이후 미 무보험 인구 200만명 급증

2018년 무보험 인구 비율 8.5%...10년 만에 상승 보험 없는 미 아동수 430만명...민주 "트럼프 정책 탓"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지난 2018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미국인 수가 전년대비 200만명 급증한 275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보험 인구가 늘어난 것은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10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미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보험 미가입률이 2017년 7.9%에서 8.5%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험이 없는 아동 수도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의 수는 전년대비 0.6%(42만 5000명) 증가한 430만명이었다.

지역별·인종별 격차도 뚜렷했다. 2017~2018년 미국 남부 지역에 사는 아이들 중 보험에 들지 않은 비율은 7.7%에 달했다. 이는 미 평균보다 1.2%p 높은 것이다.

미 통계청 관계자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공공 의료보험) 같은 공공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대상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비영리재단법인 카이저 가족재단(KFF)의 레이첼 가필드 메디케이드·무보험자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는 "무보험 인구 비율이 높아진 데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신고 요건을 강화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에 민주당은 도널드 트



지난 2018년 12월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소재 USCF 베니오프 소아병원에서 예멘 출신 이민자 압둘라 하산(2)이 생명유지장치를 단 채 침대에 누워 있다. 이 소년은 12일 후에 사망했다

럼프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케어를 고의로 방해하고 있어(사보타주) 무보험 인구도 늘었다는 것이다. 2016년 대선 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뒤집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과 관련해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잔혹한 의료 방해요로 약 2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

입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의 경제적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나 부상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도입했다. 시행 이후 미국인 2100만명이 새롭게 건강보험을 갖게 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그간 이 제도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angela0204@news1.kr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8세 미만이라도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

MA주 여전히 미성년 결혼 잦아

2000년 이후 1,200건 이상, 14세 소녀도 결혼식 올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몇 살일까?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8세 미만이라도 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채널7뉴스에서는 나이 어린 신부들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도하였는데, 가장 어린 신부의 나이는 14세였다. 그리고 모든 10대 신부들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우스 보스톤의 한 가정집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 결혼식에 등장한 신부는 뉴베드포드 고등학교 10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투표를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만들 수도 없고, 자신의 결혼식에서 삼폐인을 마실 수도 없는 나이인데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 이 어린 학생 신부의 남편은 25세였다.

신랑이 되는 남자는 자신이 사랑한다며 여자 친구와 가족들을 설득 시켰고, 마침내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다. 신부는 인터뷰에서 "사실 확실하지는 않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많은 미성년자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로 1,200번 이상 미성년자 결혼식이 열렸다.

채널 7뉴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에 있었던 미성년 결혼식은 대부분 여자가 나이가 어리고 남자가 나이가 많았다. 가장 나이가 어린 신부는 14세였으며, 보통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이상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있었다.

결혼을 할 때도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혼을 하거나 결혼을 취소할 때도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매사추세츠 칠드런스 리그의 태미 멜로는 "솔직하게 말해, 부모의 동의만 있으면 어떤 나이의 어린이라도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할 수 있다"며 "끔찍한 일이다. 매사추세츠 주의 법은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드림 케이터링 DREAM CATERING

신선한 재료를 엄선한
정통 일식, 한식 및 중식

지금 경험하세요!



MR SUSHI, TD GARDEN 보스턴 셀틱스 VIP룸 일식, 신신마트, SUSHI YA 등에서 일하시는 20년 이상의 파트별 전문 요리사들이 일식, 한식, 중식을 예산에 맞게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 드립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엄격한 위생관리를 받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서, 현재 보스턴 커플리에 위치한 THE COLONNADE BOSTON HOTEL을 비롯하여 HARVARD CLUB, WINCHESTER COUNTRY CLUB 외에도 소규모 회사파티, 학교, 학원, 각종 한인들 단체모임에 2001년부터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781.308.2073(줄리 안)



SINCE 1987
MR. SUSHI
ARLINGTON



정경심,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 언론에 보도...깊은 유감

실체적 진실과 달라...검찰 조사·법원 재판서 밝힐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유감을 표했다.

12일 정 교수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11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당사자에게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관계자와 언론을 향해 "현재 일부 언론에 사실인양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제 입장은 검찰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때까지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일부 유출된 정보로 진실을 왜곡해서 보도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교수는 같은날 오전에도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와 가족 펀드 투자사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된 것과 관련, "내용의 진위와 맥락이 전혀 점검되지 않은 녹취록으로 인해 저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녹취록에는 조씨가 최 대표에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후



9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연구실이 굳게 닫혀 있다

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 "다이해충 해 말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 둘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며 이들의 투자 담졌다. 자자금 출처 및 용처, 사업 내용 등에 관 maum@news1.kr

장제원, 경찰 악의적 여론 위해 음주운전 수사정보 유출

음주사고, 지탄받을 범죄...아들, 벌 달게 받아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의원은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사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계,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

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SEP. 13th - SEP. 19th, 2019

추석맞이 대세일

PRESSURE COOKER BULGOGI JAPCHAE

NOT JUST FOR HOLIDAYS-YOU CAN ENJOY THIS DISH AS AN EVERYDAY BANCHAN!
손이 많이가는 김치를 H마트의 황제 간헐헝 방법으로 양막손을 사용하여 손쉽게 만들어보세요!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유망점으로 성공확률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hmart.com



CELEBRATE THE FULL MOON HARVEST

H마트가 드리는 풍성한 가을 추석 세일! 올해 추석은 9월 13일입니다.

Follow us @hmartofficial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키위 **\$19.99**



White Peach 백도 **\$1.99**



Gobo 우엉 **\$1.99**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코이모 고구마 **\$1.99**



JINGA Tofu 진가네 두부 **\$0.99**



White Nectarine 화이트 넥타린 **\$1.99**



Yellow Plum 노란 자두 **\$1.49**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Ginger 생강 **\$1.79**



Seedless Red Grape 씨없는 적포도 **\$1.79**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Beef Heel Meat 사태 **\$7.99**



Ox Tail 소꼬리 **\$9.99**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 생삼겹살 **\$7.99**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목살 **\$5.99**



Whole Chicken 통닭 **\$1.79**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 양념 LA갈비 **\$12.99**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Patagonia Head-on Pink Shrimp with Roe 알대기 자연산 홍새우 10-20's **\$6.99**



Sand Eel 양미리 **\$7.99**



TONGTONGBAY Fried Anchovy 2 lbs./pkg. 통통배 튀김멸치 **\$29.99**



THE Dried Anchovy 더 맛있는 다시멸치 3.3 lbs./pkg. **\$24.99**



TONGTONGBAY Jiri Anchovy 2 lbs./pkg. 통통배 지리멸치 **\$34.99**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6.99**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RAW NATURE Brown Rice 24lb/20kg **\$9.99**
 KWANGCHIM Green Tea Seasoned Layer 2.2lb **\$9.99**
 HARD FUDGE Seasoned Pollock Rice 2.2lb **\$19.99**
 KWANGCHIM Snack Mix 25.8oz **\$9.99**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15 lb. **\$9.99**
 HARU HARU Premium Cooked White Rice 7.4oz x 12oz/pkg **\$9.99**
 HAIOREUM Brewed with Kelp Soy Sauce 60.8oz **\$3.99**
 MIZKAN Oigatsuo Tsuyu (Soup Base) 16.9oz **\$3.99**
 HAIO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2.11 lb. **\$3.99**
 S&B Golden Curry Sauce Mix 7.8oz **\$2.99**
 NIPPONHAM Umami Gyoza Dimples 21oz **\$4.99**
 CALBEE Fruita Fruit & Granola 17oz **\$5.99**
 CRISPY ROLL 21 Premium Grain Crispy Roll 6.35oz **\$2.99**
 HAITAI Mabo/Gonggan Peanut Crunch Snack 10.55oz **\$2.99**

천년 김치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1000 YEAR KIMCHI** TASTE THE BOLD TRADITION
 유산균 김치 / 100% 천연재료 사용

HAIOREUM Banana Flavored Milk Drink 6.76oz x 6oz/pkg **\$3.99**
 I WANT 100% Natural Spring Water 16.9oz x 249oz/pkg **\$2.99**
 GELATO FACTORY Pedicure Nail Sticker 6.99 **\$6.99**
 Premium Fan Cover 2.99 **\$2.99**
 HELLO HOME Men's Sailor Indoor Slipper 4.99 **\$4.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omissions/missprints. Each item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 th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5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박 혜 원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00,000

LISTINGS



● 커머셜 건물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Property 택스 저렴

Asking \$650,000



● 싱글하우스 매매

학군 좋은 타운 엔도버에 위치 필립스아카데미 5분거리, Colonial 스타일, 3700 Sq.ft, Full Finished 지하실, 사우나시설

Asking \$699,900



● 싱글하우스 렌트

캠브리지와 보스톤에서10분거리, Everett에 위치 All Hard-wood floor, 3 Beds & 2 baths 새로 레노베이션된 하우스, 주차3+ 가능

Asking 월 \$2,800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아인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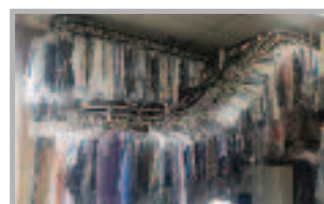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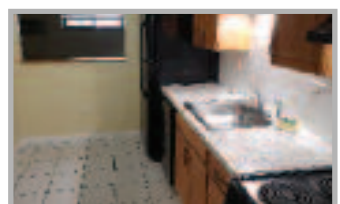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아파트 렌트

Winthrop 위치, 로건공항과 보스톤 10분거리 저렴한 렌트비, 주차 2대 가능, 수영장 시설 2 Beds & 1 Bath

Asking 월 \$1,800 (네고 가능)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스트릿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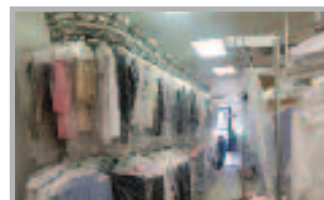
Asking \$120,000 Price Reduced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릿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조국 수사... '정당' 60.2% vs '무리한 정치개입' 35.6%

SBS 여론조사... 검찰개혁, 부정 전망이 긍정보다 우세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당하다'는 응답이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SBS는 이날 칸타코리아에 의뢰,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9~11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은 60.2%,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은 35.6%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응답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무리한 정치개입이라는 답변이 67.4%로 공정한 수사(28.5%)보다 높았지만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공정한 수사가 86.2%로 무리한 정치개입(10.7%)보다 우세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사에선 부정 전망이 긍정 전망보다 높았다. '조 장관에게 흠이 많아서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35.9%,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가 강해 잘될 것'은 20.6%, '입법사항인데 야당

반발이 커서 잘 안될 것'은 19.9%,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책임자여서 잘될 것'이라는 답변은 18.9%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는 45.1%, '잘 못하고 있다'는 51.6%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1.3%, 자유한국당 18.8%, 정의당 6.3%, 바른미래당 4.1%, 무당층 38.5%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조사(RDD, 유선 20%·무선 80%)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자세한 내용은 www.sbs.com/program/plus/jeonggyoungsim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oodday@news1.kr

임은정 검사 "검찰, 내부비리 눈감고 조국 부인 수사에 폭주"

"교수 사건보다 중한 검사 범죄 더 독하게 수사해야" "수사권·지휘·종결권 갖춘 검찰공화국 난공불락 요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이 내부비리 조사보다 조국 법무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귀족검사의 범죄가 경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

족검사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후보자의 부인이라 오해를 사지 않도록 더 독하게 수사했던 것이라면, 검사의 범죄를 덮은 검찰의 조직적 비리에 대한 뇌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그 부인보다 더 독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청주지청 부장검사

이어 "검찰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검찰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 리이중 적용한다면 그런 검찰은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사건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몽게면서, 어떤 고발장에 대해선 정의를 부르짖으며 특수부 화력을 집중해 파헤친다"며 "역시 검찰공화국이다 싶다"고 밝힌 바 있다.

seunghee@news1.kr

오피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뼈 매운탕도 강추!

**확장
오픈**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 \$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머묵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Chelmsford Beauty Academy

로웰에서 5분, 로렌스에서 15분, 벌링턴에서 10분, 앤도버에서 10분 거리

- 경험있는 교사진
- 90% 주보드 시험 통과후 바로 취업
- 풀타임 및 파트타임
- 매달 속눈썹 연장, 속눈썹 리프트, 눈썹 문신 훈련 클래스



뷰티 아카데미 수업 내용 및 시간

에스테틱스: 600시간

페이셜, 왁싱,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 등 포함

매뉴큐어리스트 : 100시간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크릴릭 젤, 디핑 파우더 등 포함



60 Chelmsford st #2, Chelmsford MA 01824
978.250.4488 978.987.3766

특스베리 소재 성업중인 네일살롱에서 네일 테크니션 구인중
주급 \$800-\$1000
978.967.6695, 978.987.3766

2개 대형 네일살롱 세일중
12개 스파 페디큐어, 10개 매니큐어 테이블
2 페이셜+ 왁싱 룸, 월마트가 있는 대형 플라자 내(가격 16만불 이상)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聖陽浦安 多不呂 波士頓 韓人聖堂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예비자 환영식
 9월 22일 (주일)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5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열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양: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60년 전통 이탈리아 명품 왕실 침대 매그니플렉스 목, 어깨, 허리통증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누우면 몸의 곡선에 따라 편안하게 바쳐주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서히 스트레칭 시켜 줍니다."

1 잠자면서 자동으로 스트레칭되며 디스크를 생성시켜 목과 허리통증 치료에 탁월합니다.

2 우주복 재질로 만들어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전기담요, 전기매트, O 침대 없이도 따뜻하며 전자파에 해가 없이 안전합니다.

3 특수 재질로 어느 부분도 푹 꺼지지 않게 평형을 잡아 주어 움직임이 편안해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DOLCE VITA COLLECTION COMFORT DUAL 10 FIRM

LEVEL OF COMFORT: FIRM / EXTRA FIRM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

SUPREMO COLLECTION DIAMANTE DUAL 14

LEVEL OF COMFORT: MEDIUM SOFT / SUPER SOFT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

MAGNISTRETCH 12

LEVEL OF COMFORT: MEDIUM SOFT
COVER: OUTLAST® / VISCOSE
WARRANTY: 20 YEARS
CERTIFICATIONS: OEKO-TEX® / MADE IN ITALY

MOTION BASE

특별 기능에
대응해 디자인을
개선
UNO PLUS
Adjustable Base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 사용 후기

- 김시몬 (Closter, NJ)
허리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전에 보통 매트리스 사용했을 때 스테로이드를 5회 맞아도 병원치료를 다녀도 안났던 허리 통증이 매그니플렉스 사용 후 병증변환 치료와 병행 후 빠르게 통증이 없어져서 말에게 하나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스테로이드를 안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 김동원 (Livingstone, NJ)
잠자리가 너무 포근한 느낌과 보온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내가 팔하기를 심하게 코를 골던 것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고 나면 아주 개운합니다. 제 아내는 깊은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숙면을 위해 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허리통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 김종현 (Palsades Park, NJ)
O형대를 10여년 사용했는데 몇년전부터 목주의와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데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를 그 위에 올려놓고 사용 후 잠자리가 편하고, 목과 허리통증이 사라졌어요. 후우면 전기 스위치를 올려려 했는데 신기하게 전기 스위치를 꺼지 않아도 아주 따뜻합니다. 말에게도 사주었는데 너무 편안하고 포근하다고 좋아 합니다.
- Johnny Kim (Rego Park, NY)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에 누우면 너무 편하고 배김이 없어요. 전에는 제가 움직이면 옆에 지는 와이프가 신경이 예민해 잠을 자주 깬데 이제는 옆사람이 움직여도 흔들림이 없어 와이프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사용 후 피로가 풀리고 아침에 머리까지 개운 하다고 합니다.
- 임 안젤라 (Norwood, NJ)
이전에 스프링 침대를 사용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에 쥐기 자주 났는데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를 바꾸고 허리통증도 사라지고 편안한 자세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다리에 쥐도 잘 안나고 있습니다.
- 민복선 (Palsades Park, NJ)
O형대의 딱딱함이 싫어 매그니플렉스 제품을 사용하니 누우면 허리 곡선을 부드럽게 바쳐주어 아주 편안하고 깊은 잠이 들어 혈액 순환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	---	---	---	---	--

한국 배터리에 부메랑 LG화학 연구인력 스웨덴 대거 이직

노스볼트 "회사 성장에 한·일 연구원 30명 결정적 역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근 국내 업체를 제치고 독일 폭스바겐과 배터리 합작사를 세우기로 한 스웨덴 배터리 업체의 고속 성장에는 한국에서 이직한 LG화학 직원의 핵심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의 우수한 인력이 유출돼 앞으로 한국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을 통해 현재 30명 이상의 한국인과 일본인 연구원이 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스볼트는 해당 한국인이 누군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배터리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전직 LG화학 직원이라고 본다. 실제로 해당 페이지에서 노스볼트는 현재 직원들의 대표적인 전직장 7곳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중 한국과 일본 기업은 LG화학과 파나소닉뿐이다. 모두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다.

특히 노스볼트는 지난 2017년 배터리 연구팀이 처음 구성됐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 한국인 직원 등이 자사의 배터리 기술 로드맵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a crucial role)'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스볼트의 핵심인 이틀한·일 연구원 30명은 전체 직원 250명(2019년 봄 기준)의 10%를 넘는 등 숫자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한국인 연구원의 대부분이 LG화학 출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각각 언제 이



스웨덴의 노스볼트 연구실에서 동양인 남성 직원들이 모여 업무를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30명이 넘는 한국인·일본인 엔지니어들이 노스볼트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노스볼트 설립 초기인 2017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은 최근 노스볼트에 9억유로(약 1조180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올해 초부터 폭스바겐과 합작사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 성사됐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노스볼트가 설립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스웨덴으로 건너간 LG화학 출신 직원들의 역할이 있었던 셈이다. 현재 LG화학은 이와 비슷한 구조인 SK이노베이션과도 인력·기술 유출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이다.

이렇게 한국 배터리 업계 인력이 해외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현상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중국 헝다그룹은 지난 9월 배터리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면서 자

격 요건으로 '5년 이상 해외 자동차 동력 전지 회사 업무 경험'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계는 한국 기업보다 2~3배 높은 연봉을 보장하고 인력을 빼가려는 의도로 본다.

해외 경쟁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의 우수한 인력에게 눈독을 들이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도 마땅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기업들이 소송전을 치르는 가운데 국내 핵심 인력들은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해외 배터리 업체가 성장하다보면 한국의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며 "물론 인력이 갔다고 해서 당장 기술이 유출됐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게 인력이 많이 가다보면 정말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졸음을 피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휴게소에서 잠시라도 수면을 취해야 한다

졸음운전 대형사고로 이어져 피곤하면 휴게소 5분 스트레칭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차들이 도로 위에 쏟아지는 추석 연휴 귀성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과 사투를 벌여야 할 때가 많다. 차 안에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다 보면 급세 피로가 몰려오고 졸음으로 이어지기 쉽다. 즐거운 명절에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본다.

무엇보다 바른 자세로 운전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2~3시간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면 근육 긴장으로 허리와 목이 빠근하고 피곤함이 몰려온다.

운전자는 허리를 곧게 펴야 하고, 몸을 뒤로 기대거나 운전대 앞으로 수그리면 전신근육이 긴장할 수 있다. 평소 허리부위 통증이 있다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위에 위치하는 게 좋다.

피로를 느낀다면 운전 중 1~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에 들러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어깨와 목 부위를 가볍게 손으로 주무르고 허리를 굽힌 뒤 발목과 무릎 순으로 주무른다. 허리부위 근육은 가장 마지막으로 쫓는다. 이때 상체를 천천히 뒤로 젖혀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게소에 들른 김에 당분이 많으면서 양이 많지 않은 음식을 구매하는 것도 빠른 피로회복을 위한 꿀팁이다. 운전 중 졸음이 쏟아질 때 적당량만 먹어도 기력회복에 도움이 된다.

밀폐된 차 안에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실내환기를 시키는 것 역시 졸음을 쫓는 데 효과적이다. 창문을 열지 않고 오랫동안 운전하면 두통도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도 졸음을 피하기 어려우면 굳이 이겨내려 하지 말고 반드시 휴게소에서 잠시라도 수면을 취해야 한다.

lys@news1.kr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Nail Salon 메니큐어 10, 페디큐어 10 별링턴 15개 상가가 밀집된 성업중인 Nail Salon</p> <p>ASKING \$95,000</p>	 <p>보스턴 서쪽 한국식당 23년 오너가 직접 운영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p> <p>ASKING \$80,000</p>	 <p>보스턴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물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상.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p> <p>ASKING \$19,9500</p>
 <p>보스턴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Cash \$90,000,</p> <p>ASKING \$12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턴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이승기x수지 '배가본드'...초대형 첩보액션멜로

(서울=뉴스1스타) 윤효정 기자 = 오는 20일 처음 방송되는 SBS 금토드라마 '배가본드'(극본 장영철 정경순/연출 유인식)는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한 남자가 은폐된 진실 속에서 찾아낸 거대한 국가비리를 파헤치게 되는 드라마다. 가족도, 소속도, 심지어 이름도 잃은 '방랑자'(Vagabond)들의 위험천만하고 적나라한 모험이 펼쳐지는 첩보액션멜로로, 장장 1년 여 간의 제작기간, 모로코와 포르투갈을 오가는 해외 로케이션을 진행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9일 공개된 포스터는 유리 파편을 상징한 노이즈 뒤로 숨결까지 연기하는 듯한 배우들의 얼굴 표정을 한 가득 담아낸 연출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단번에 시선을 압도한다.

주인공 이승기 배우지의 '2인 포스터'는 각각 총구를 겨냥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심상찮은 기운을 드리운다. 이승기는 팍과 피가 범벅인 얼굴을 한 채, 눈에 핏줄까지 터진 강렬한 눈빛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누군가를 매섭게 노려본다. 배우지 역시 내리는 빗속에서 검은 우비를 쓴 채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는 눈빛으로

정체 모를 상대를 향해 총구를 겨누며 국정원 블랙요원의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는 것. 극의 클라이맥스 격인 신을 포스터로 구성, 두 사람이 가진 사연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자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단체 포스터에서는 이승기 배우지 신성록 문정희 백윤식 문성근 이기영 이경영 김민중 정만식 황보라 김정현까지 총 12인의 명품 배우가 한데 모인 압도적 장관을 통해 팽팽한 기운을 뿜어낸다. 민항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 은폐된 진실을 둘러싸고 쫓고 쫓기는 추격의 일선에 선 이들은 때로는 확신에 찬 표정을, 때로는 서늘한 기운의 눈빛을, 때로는 묘한 분위기의 미소를 지으며 표정 하나만으로 각기 다른 캐릭터들이 가진 스토리를 설명하고 있다.

'배가본드'는 '자이언트' '샬러맨 초한지' '돈의 화신' '너희들은 포위됐다' '미세스캡' '낭만닥터 김사부' 등 손대는 작품마다 히트작을 만든 유인식 감독과 '자이언트' '샬러맨 초한지' '돈의 화신'에서 유인식 감독과 호흡을 맞췄던 장영철·정경순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 여기에 배우 이승기 배우지 신성록 문정희 백윤식 문성근

이경영 이기영 김민중 정만식 황보라 장혁진 등 역대급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유인식 감독은 대작 드라마를 선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이 어마어마했다. 올해 대작 드라마가 많이 나왔고, 성적 여부와 상관 없이 먼저 간 발차취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안 해본, 시도를 안 해본 것들을 하면 기존 시스템과 유리한 점도 있다. 그리고 그만큼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고,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럼에도 안 가본 영역을 개척하는 작업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한 부담감과 사망감 가지고 일을 했는데 정말 이 드라마가 좋은 성과가 나서 수익의 영역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보신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한다"라며 "기존 작품과 비교하는 건 조심스럽고 다만 저희끼리는 스펙터클을 위한 스펙터클을 하지 말아보자, 내용에 걸맞고 인물에 걸맞는 화면을, 풍경이 기여하도록 신 구성을 고민했다. 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가본드'는 민항 여객기 추락 사고에 연루된 한 남자가 은폐된 진실 속에서 찾아낸 거대한 국가비리를 파헤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오는 20일 오후 10시 처음 방송. ichi@news1.kr

9월 15일 - 9월 21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좋은 에너지를 받는

● 운수: 드디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좋은 에너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자신을 가지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시켜도 되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거나 파는 시기로 적합합니다. ● 애정: 상대를 위해서 뭔가 평상시와 다른 것을 해주세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6, 20일 길일, 15, 18일 주의.

소띠 | 기다리다가 찬스를 잡아

● 운수: 집중하고 기다리다가 찬스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전 진보다는 잠시 멈춰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전: 재물운은 매일 매일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인 상태입니다. 주말쯤에나 가서야 소망이 이루어져서 소득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혼자 결정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위의 힘을 빌려보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17, 21일 길일, 16, 19일 주의.

범띠 | 넓고 큰 마음으로

● 운수: 지나친 근심걱정이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심신의 편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 금전: 고통 뒤에 행운이 따르는 운세로 회복의 기쁨이 마련될 것입니다. 떨어졌던 신용도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 애정: 옛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 있습니다. 감상에 젖은 추억으로 마음만 실랑실랑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6, 18일 길일, 17, 20일 주의.

토끼띠 | 행운이 기대되는

● 운수: 행운이 기대되는 때입니다. 뜻밖의 즐거운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 금전: 돈이 들어오는 주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서 황금을 만든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할 상대가 필요하군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를 대하면 사랑의 여신이 함께 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6, 19일 길일, 18, 21일 주의.

용띠 |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 운수: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때이니 답답해도 묵묵부답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왜곡된 진실을 알게 됩니다. ● 금전: 절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쓰고 싶은 것을 다 쓰면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애정: 사랑은 줄수록 늘어나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주려고 해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1일 길일, 15, 19일 주의.

뱀띠 |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 운수: 쉽게 얻은 것은 아무리 좋아도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고생해서 얻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미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내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평화를 찾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8, 21일 길일, 15, 20일 주의.

말띠 |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 운수: 지금까지 쌓아온 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와 일에 있어서 행운이 따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도 성사될 것입니다. ● 금전: 계획을 잘 세워서 규모 있게 돈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부업의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유리한 운이 따를 것입니다. ● 애정: 현명한 판단 하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초혼이나 재혼이나 결혼의 계기가 주어집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7, 19일 길일, 15, 21일 주의.

양띠 |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 운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은 나뭇잎과 같습니다. 나뭇잎이 너무 무성한 나무는 열매가 적은 것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실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남의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면 마음이 불편해지니 자기 것이 아니면 외면해 버리세요. ● 애정: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대화로서 풀어야겠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7, 18일 길일, 19, 20일 주의.

원숭이띠 |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 운수: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세요. 어떠한 일이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만 성과도 있고 자신의 품위도 지킬 수 있습니다. ● 금전: 새롭게 투자를 해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일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사랑은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21일 길일, 15, 17일 주의.

닭띠 | 능력이 돋보이고

● 운수: 문서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큰 거래나 교섭에서 자신의 능력이 돋보일 것입니다. ● 금전: 차츰 금전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고 마음이 통해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 애정: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개띠 |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여

● 운수: 아무런 욕심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새 일을 추진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 금전: 금전운통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맺게 될 것입니다. ● 애정: 그동안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이성에게 뜻밖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관계는 더 좋아지고 사랑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돼지띠 | 책임을 다하도록

● 운수: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자신에게 온 복을 밀어내는 것이 됩니다. ● 금전: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은 나중에 가서 실망하거나 헛수고한 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오해하지 않게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5, 19일 길일, 17, 20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9/20
벨몬트에 있는 세탁소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타운터 파트타임 1명, 풀타임 1명.
T. 617-309-6140

6/14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이수근X은지원 '아이슬란드 간 세계' 정규편성

(서울=뉴스1스타) 고승아 기자 = 이수근 은지원의 '아이슬란드 간 세계'가 정규편성됐다.

tvN '신서유기 외전 : 삼시세끼 - 아이슬란드 간 세계'(연출 나영석, 신효정) 측은 10일 정규편성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오후 10시 40분 처음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근, 은지원은 지난 '신서유기6'에서 '아이슬란드 오로라 보기' 상품권을 획득했지만 "여행을 좋아하지만 스케줄이 많은데 이걸 별척이나 다름없다"라며 상품 수령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후 '강식당3'에서 아이슬란드 수도를 맞이지 못하면 한 달 안으로 아이슬란드에 떠나는 퀴즈에 도전, 정답 맞히기에 실패해 본격적인 아이슬란드행이 성사됐고 지난 1일에 출국해 4일에 돌아오는 3박 4일 일정으로 아이슬란드를 다녀온 것.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청자를 만난 것은 물론, 기상 미션 등 다양한 활약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5분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시간이 눈길을 끈다. 프로그램 제목 역시 '신서유기 외전 : 삼시세끼 - 아이슬란드 간 세계'로 프로그램 탄생 기원과 '삼시세끼' 후속 정규편성의 의미, 이수근 은지원 두 사람의 활약상까지 모두 담고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앞서 지난 9일 공개된 '신서유기 외전 : 삼시세끼 - 아이슬란드 간 세계'의 첫 번째 티저 영상들을 살펴보면 이수근과 은지원이 5분 분방사수에 나서 이목을 사로잡는다. 두 사람은 "10시 40분에 시작해 45분에 끝난다. 다른 불일 보고오면 끝난다"며 자칫하면 놓

치기 쉬운 5분 편성을 강조, 분방사수를 독려했다. 또한 두 사람의 뒤로 광활한 아이슬란드의 경관이 펼쳐져 방송에서 보여질 아이슬란드의 풍경에 기대가 모아지기도.

한편 방송 시간은 5분으로 짧지만 웃음은 풍성한 '신서유기 외전 : 삼시세끼 - 아이슬란드 간 세계'는 오는 20일 오후 10시 40분 처음 방송된다. 방송 이후 유튜브 채널 내나를 통해 풀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다.

seunga@news1.kr

'라스' 윤종신 "이방인 프로젝트로 외국行...SNS도 한달 끊을 것"

(서울=뉴스1스타) 이지현 기자 = 12년 만에 '라디오스타'에서 하차하는 윤종신이 SNS도 잠시 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아내(전미라)가 테니스 투어를 10년 다녔다. 혼자 전세계를 다니면서 외롭지만 얻는 게 많다는 걸 알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1990년 데뷔한 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약 20년간 방송을 쉬지 않

았다고 털어놨다. "시아에서 사라지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싶었다"고 고백하기도.

이를 듣던 김구라는 SNS도 끊을 것인지 물어 웃음을 샀다. 이에 윤종신은 "한달 정도는 안할 생각이다. 월간 윤종신을 알려야 되니까 이후에는 해야 하지만..이라고 대답했다. 김구라는 "두 달 하지 마!"라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lll@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벤티지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리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과장선교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디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NH)	603-889-8201
뉴잉글랜드공공근로조합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근로조합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행사주세체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중평등보수협회의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852-0400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미군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뉴잉글랜드)	781-424-5269
F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강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신우회)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침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디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디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로디아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디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말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3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달리다공교회	347-610-8094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날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20-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에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508-73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비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617-913-3559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워십프린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전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장로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861-3877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92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디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청문	617-999-9613
아들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8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영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0-3946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기

인디펜던트(투기) (유영옥)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수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김 동물병원	978-658-5282

떡/전차/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정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스킨케어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손숙한	617-290-0623
송기백부동산	617-9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안 수진 부동산	339-224-1512
애나주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제이슨전 부동산	617-642-5670
프루덴셜(이호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미경)부동산	603-845-2138
최지혜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 살롱	508-879-77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수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 우지아노 변호사	857-576-2388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엡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의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멘탈니스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지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영미아워힐리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치주신경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설팅카이로	617-277-0648



120년 바른길,
더 건강한 내일로

정관장 천복으로 더 귀하게!

정관장 천복에는 한 방울의 타협도 섞이지 않은 120년 바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원산지까지 직접 관리하고 여덟 단계로 거듭 검증하고, 녹용탕까지 담아낸 정관장 천복- 소중한 건강은 정관장 천복으로 더 귀하게 챙기십시오.



정관장 홍삼달임액으로 더 진하게!

정관장 홍삼달임액에는 한 방울의 첨가물도 더하지 않은 120년 바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첨가물 없이 100% 순수 홍삼만 달여내, 홍삼 본연의 깊고 진한 맛과 향이 담겨낸 정관장 홍삼 달임액- 소중한 건강은 정관장 홍삼달임액으로 더 진하게 챙기십시오.



120년 후려의 엄격함 같다
정관장 홍삼달임액

정관장 6년근 홍삼만
100% 순수하게

말미 기준이 자라는 6년
인상을 보일 때는 시간 6년
정관장 6년근 홍삼에는
8년의 함량이 담겨있습니다

면역기능 강화

예방적 관리를 위한 면역 기능 강화

기초 체력 향상

지구력과 인내력을 조속시켜
기초 체력의 기준을 향상

신진대사 강화

자연스럽게 체온을 활성화하여 신체
기능과 체력 전환이 순조롭게 작동

피로 회복

정신적 육체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 건강 기능의 균형 유지

혈류 개선 효과

건강한 신체 리듬을 활성화하면서 신체 각 부위에
신소와 영양분 공급을 위한 혈류 개선

피부 개선

항노화 작용을 통해
문기있고 건강한 피부 상태 유지

**추석엔
마음을
주세요**

함께 나누는 한가위

정관장으로 더 건강하게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100g 홍삼정 Mild 증정



Event 2



홍삼달임액 / 천복에브리타임 구입시 **5포 추가증정**

\$200 이상 구입시 화애락 본 10포 무료 증정

\$300 이상 구입시 화애락 본 20포 무료 증정

행사기간 :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후 1-2일 후에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노예의 경제적 기여와 노예제도 정립

1550년 무렵부터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은 미 대륙 동부 해안 여러 지역에 이주자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이주자를 영어로 콜로니스트(colonist), 지역을 콜로니(colony)라고 한다. 콜로니스트 모집, 배운임과 정착 비용은 자국에서 세워진 이주회사가 부담하였다. 콜로니에서 생기는 이윤을 얻는 조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 콜로니는 영주 정착을 못하고 폐쇄 혹은 소멸되었다. 영국의 버지니아 컴퍼니라는 회사가 1607년 제임스타운에 세운 콜로니도 첫 몇 해 동안은 자립이 위태로웠다. 인디언과의 적대관계, 질병, 기아 등의 이유로 1610년까지 3년 동안에 560명의 콜로니스트 중 452명이 죽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계속 보낸 총원, 인디언 쇠퇴로 지탱하던 중, 영국인의 기호에 맞는 담배의 재배에 성공함으로써 발전의 기틀을 세운 것이다. 담배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처음에는 인디언과 가난한 백인과의 노동계약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무더운 날씨와 농사일 경험이 적어 적절치 못했다. 반면 흑인 노예는 어려운 여건에 익숙하여 농장주들은 흑인 노예를 선호하였다. 필요한 노예 노동력을 메꾸기 위하여 영국왕실과 농장주가 대서양 노예 무역을 크게 하기 시작하였다. 1690년 경에는 담배 재배에 동원된 강제노동자의 대부분이 흑인 노예였다. 담배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여, 1622

년 수출량 60,000 파운드에서 1600년도 말에는 무려 2천만 파운드로 늘었다. 담배는 수확량이 기후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심하고, 많은 비료를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미국의 독립으로, 영국이 담배 수입처를 다른 식민지로 옮기면서, 타격이 있을 즈음, 목화가 등장한 것이다. 목화 재배는 목화 섬유질을 목화씨로부터 분리하는 느린 수작업에 발목이 잡혀 생산량을 키우기 어려웠다. 그러자 이 수공정을 10배 빨리할 수 있는 Cotton Gin이라는 기계가 발명되었다. 이에 힘 입어 목화 생산량이 대폭 커지며, 면이 1835년 경에는 미국 총 수출액의 반을 차지하였다. 목화 수출량의 증가는 스페인으로부터 구매한 루이지아나 지역의 개척, 미국 북부의 면 직조 산업, 무역에 필요한 대형선박 건조, 사업확장에 쓰일 자금을 지원한 은행 등 미국 전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노예 인구도 따라 증가하여, 남북전쟁 직전에는 4백만명의 노예가 있었으며, 건강한 노예는 당시 시세로 \$1200~\$1300에 거래되었다. 수백의 노예를 가진 대농장주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목화 이외에도 커피, 설탕, 럼 등도 노예노동으로 생산하였다.

한편 노예의 수가 늘어 남에 따라 백인 노예주들은 효과적인 통제를 위하여 점차로 가혹한 법을 만들었다. 제임스타운이 속한 버지니아 콜로니는 1662년 어머니가

노예면, 자식은 평생 노예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노예주는 노예 신 상품을 대대로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흑인 여자 노예에 대한 소유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노예상품화를 법으로 정하였다. 주인에게 반항하거나, 체포를 거부하면 죽일 수도 있었다. 장례식을 포함한 어떠한 집회든지 가질 수 없도록 하였다. 1705년에는 흑백인 간의 결혼을 막기 위하여 백인 배우자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물렸다. 19세기 초에는 미주리 등 여러 콜로니는 흑인에게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

였다. 육체뿐 아니라, 지적인 면으로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런 일련의 법 제정으로 죽음이 아니고는 헤어 날 수 없는 가혹한 노예제도가 정립되었다. 노예의 강제노동에 따른 경제 기여도가 커 갈수록 노예는 더 무거운 쇠고랑을 차야만 했다. 영국의 시인 Cowper는 “나는 그들에 대하여 한없는 애처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겠다. 설탕과 럼없이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였다. 차와 커피의 달콤함이 인간의 삶 보다도 우선이었던 미국의 노예 제도를 직설하고 있다.



Sugar Cane Harvest (by William Clark, 1823)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4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80 4·19 혁명 1988 8·15 건국 100주년 1987 8·10 민주항쟁 1990 IMF 외환위기 극복 2000 5월 16일 2008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 정상) 2015 3·1 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100주년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개천절 기념

무용과 국악 축제

사물과 호적을 위한 놀이
국악 재즈: 심청가
아쟁 산조
삼고무
민속 기악협주 시나위
대금독주
가야금 산조와 발레
남도 잡가와 진도아리랑



이태백 아쟁
이지영 가야금
임현빈 소리
원원철 대금
김태영 장구
김나영 소리
유세라 첼로
한서혜 발레
라이언 발레
보스톤 무용단
캐릭 해설



감동적인 표현력, 풍부한 경험과 최상의 테크닉을 자랑하는
국악 명인들의 공연을 기대한다 -- Musical Intellige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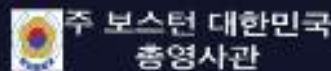
한서혜의 춤은 가볍고 정확하며 시적이다 -- Boston Globe

9월 29일 (일) 오후 3시

Jordan Hall, New England Conservatory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티켓: \$60, \$40, \$20, 학생무료, 인터넷 특별 할인
www.kcsboston.org/781-223-4411

후원



신영의 세상 스케치

711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가끔 한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神,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오면서 겪는 경험에서의 일일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건강이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들이 닥쳐 캄캄하고 암담한 터널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아 고민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안한 사회와 세계 속에서 나를 든든히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신독(愼獨)'이 아닐까 싶다.

살면서 쉽지 않지만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럿이 있을 때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으로 성실하면 밖으로 드러난다' 옛말처럼 늘 같은 마음의 중심과 무게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 가 아님을 깨닫는 참 神을 믿는 신앙인이길 마음을 모아본다. 그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추스르고 다스리며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무엇이 갑자기 변할 수야 없겠

지만, 매일 매일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늘 내 뜻이 아닌 남의 뜻이 되기 쉬운 까닭이다.

'남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욕(人欲)과 물욕(物欲)에 빠지지 않고 삼간다'라는 뜻을 지닌 '신독(愼獨)'은 나 자신에게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한 묵상으로 안내한다. 여럿이 있을 때는 남을 의식하기에 자기 자신을 자중하기도 하고 다스리기가 쉽지만, 혼자 있을 때의 자신의 숨은 '욕심과 욕정'들은 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돈)은 필요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다. 물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지만, 혹여, '물질의 노예'가 될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 더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입장일 것이다. 그것은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삶의 편리함과 함께 그에 따른 손해(피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더욱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 외에

무엇을 하는지 살피지 않으면 불안해 지는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너무도 급속도로 달려가는 현대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든 것이 편리한 만큼 무엇인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이다. 요즘의 아이들을 키우며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더욱이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바빠진 것이다.

삶에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남을 의식해야 하는 그 어수선한 마음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저것 재어보고 이런저런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제대로인 나를 살 수 있을까 말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어느 한 무리에 속한 단체라는 곳에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나를 속박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명품 치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자유로운 사람인데 알면서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각각일 때가 많다.

요즘 가끔 우스게 소리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란 얘기로 웃음을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자신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다. 가

끔 어느 모임을 가더라도 때와 장소에 맞게 잘 차려입어 눈에 띄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 사람 자신에게 맞게 차려입은 모습이 참으로 멋스러워 보이면 부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옷차림이 내가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멋스러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멋이란, 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멋'이며 나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맞게 연출하는 것이 바로 '멋스러움'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밖으로 연출된 모습도 이렇듯 각각의 모습일진대, 마음 안에 자리한 마음의 색깔과 모양과 소리는 얼마나 갖가지로 쌓였을까 말이다. 이제는 지천명을 올라 오십 중 반을 걸어가는 입장에서 마음속의 것들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어지는 것이다. 남의 것을 흉내 내는 그런 '멋'이 아닌 내 안의 것을 갖고 닦아 저절로 차오르는 '참 멋'을 연출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아니 연출이 아닌 자연스러움으로 그저 흘러넘치는 삶이길 바라는 것이다. 삶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하루를 맞고 보내고 또 한 계절을 맞고 보내며 그렇게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를...



한담객설閑談客說: 스팸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추석이다. 한가위라고도 한다. 추석명절에는 송편을 빚어 먹는다. 한편 인사 갈적엔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 뭐라도 하나쯤은 선물로 들고 가는 거다. 추석선물도 택배로 보내는 거건 모르겠다.

두어해 전 이즈음 일게다. 눈을 끄는 한국신문 기사가 있었다. 추석선물로 미제스팸(SPAM)이 많이 팔렸다는 기사였다. 과일선물 꾸러미에 스팸강통이 한두개 얹혀져 있던 모양이다. 빈손이면 손이 부끄럽고, 큰선물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과일과 스팸

통조림과 무슨 조합인가?

햄인지 분홍색 고기덩이가 스팸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스팸이라면 부대찌게가 먼저다. 내게 그렇다는 말이다. 스팸이든지 부대찌게든지 격조 높은 음식은 아닐게다. 그저 살코기대신 스팸햄과 소세지와 김치와 라면을 넣어 푹 끓여낸 얼큰한 찌개라는 것. 미군부대에서 흘러 나왔던 고기덩이가 주재료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대찌게를 끓이는 레서피를 자세히 안다는것도 아니다.

부대찌게엔 슬프다만 칼칼한 역사와 얼큰한

이야기가 담겨있을수도 있다. 오히려 가슴만 찜찜하지만 말이다. 광재구 시인이다. 된장찌거나 김치찌게 만한 깊이는 없다. 하지만 부대찌게에도 힘은 있을 게다.

김치찌게 하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 속에는 하루의 피곤과 침침한 불빛을 넘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이 들어 있다 (광재구, 김치찌게 평화론 중에서)

검보를 아시나요. Gumbo soup 이라야 맞겠다. 뉴올리언즈에 갔다가 맛을 봤다. 옛날 아프리카에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 끓여 먹던 음식

식이라던가. 레서피야 알수 없지만, 내입에 맞았고 맛있게 먹었다. 음식은 뭐든 다 넣고 푹 끓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음식은 본고장에서 먹어야 하는가. 악어고기 튀김과 같이 먹었다. 이 역시 맛은 특이하지 않은데, 내력 또한 밝지 않은 않다. 슬픈역사 때문일거다.

스팸메일이란 말도 있다. 쓰레기메일을 일컫는다. 스팸메일엔 슬픈 이야기는 없는데, 한국에선 추석에도 스팸이 많이 팔렸던가. 한국 정당 대변인이 기자記者를 향해 기레기라 했다. 듣는 맛이 달갑지 않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마가 2:16)



TASTE THE NORWEGIAN DIFFERENCE

EXPERIENCE PREMIUM MACKEREL FROM THE COLD, CLEAR WATERS OF NORWAY

JOIN US ON

SEPTEMBER 13TH - 19TH, 2019
AT H MART BURLINGTON STORE



노르웨이 수산물의 차별화된 맛!
노르웨이 청정해역에서 자란 고등어를 맛보세요!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Chamber Music of La Mer et L'Île 라메르에릴(바다와 섬) 보스턴 공연

Special Concert to Commemorate the Centen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LA MER ET L'ÎLE



(이정순, 탁도 연주, 2018)

A. Glazunov/Jeong-Myun Lee/June-Hee Lim/B. Britten/B. Bartók

7:30PM, Sat. Sep.14, 2019 Jordan Hall, NEC, Boston



(사)라메르에릴
La Mer et L'Île



매사추세츠한인회

Supported by



주보스턴총영사관



Arts Council Korea



LEESANGIL
CULTURE FOUNDATION

For tickets, please contact
ma.korean.net or yonglee686@gmail.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45) 중요한 투자 경비

뱅크드 창업자 잭 보글(Jack Bogle)은 미국 금융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 일반인의 돈을 관리하고 도와주며 투자자에게 운용비(Management Fee)를 부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부과하느냐?'이다. '미국 대부분의 투자회사가 투자 돈을 관리하며 운영비를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고 잭 보글은 말한다.

잭 보글의 제목인 "충분한(Enough)" 책에서 미국 대부분 투자회사는 일반 고객에게 부끄러운(Shameful) 행위를 한다. 뮤추얼 펀드 회사가 부과하는 경비는 고객의 돈을 절도(Larcenous)하는 것과 같고 보험회사나 투자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노상강도(Like highway robbery)와 다름없다."라고 말한다. 한 개인이 미국 전체 금융회사를 훔쳐내는 데는 확고한 신념과 사실이 아니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가 학자금, 은퇴 준비, 등으로 돈을 투자하는데 최대의 (2) 가지 적은 투자경비와

투자자의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투자자가 돈을 모으는데 최대의 걸림돌인 투자경비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사람을 지난 25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다. 투자경비가 얼마인지 모르 체 투자한 것이 본인이 무지한 탓이라고 투자자는 말한다. 이처럼 한인 동포는 남을 배려하지만, 이것은 본인 잘못도 아니고 무지한 탓도 아니다.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투자경비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는 보험인이나 재정상담가의 잘못이다.

투자에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하는 어뉴티나 생명보험을 판매하며 본인이 수수료(Commission)를 얼마 받는지, 매년 부과되는 전체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말하지 않는다. 문서로 작성해서 주지도 않는다. 투자 돈을 관리하며 매년 운영비를 부과하는 재정설계사는 투자종목마다 부과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재정문서에도 나오지 않는다. 뮤추얼 펀드에 숨어있는 수수료 역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투자자 본인은 투자

경비 전체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며 한 푼 한 푼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주부가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산다. 그런데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투자하며 발생하는 경비를 모르면서 하는 투자가 제대로 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보험인이나 재정설계사가 투자한 투자상품이나 종목이 제대로 된 투자인지는 일단 접어두자. 투자와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본인들이 받는 수수료와 모든 투자경비를 투자자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난 10년 미국의 주식시장은 4배(Inside the bull market's decade long run, WSJ staff, WSJ, March 9-10, 2019)로 불어났다. 투자 돈 \$100,000이 \$400,000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것은 투자종목이나 시점을 잘 선택해서가 아니다. 미국 대기업 500개 회사(S&P 500 Inex)의 수익이다. 이것과 비교해서 나의

투자 돈이 그만큼 불어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이 부과되고 있는 투자경비 때문이라고 말한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나의 돈이 줄어들지 않고 혹은 그동안 생활비로 사용했는데도 원금보다 적어지지 않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이 침체에 들어가면 투자손실이 매우 커진다는 사실이다. 투자경비는 항상 부과하기 때문이다. 투자하며 부과되는 수수료는 노상강도에 당하는 일이라고 잭 보글은 언급한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재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로 필자의 회사는 투자를 도와주며 수수료를 받는 투자상품이나 종목에 일절 투자하지 않는다. 매년 부과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고지서(Invoice)를 작성해서 보여준다. 투자종목에 대한 비용도 정확히 발표하고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의 첫 순서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87 화랑세기花郎世紀, 12세 풍월주風月主 보리공菩提公(6)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수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두 딸 화명과 옥명 그리고 아들 원광과 보리가 태어났다.

한편 숙명의 장녀 화명은 하종을 좋아했다. 하종은 미실이 세종과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화명과 하종은 내외종간이다. 그럼에도 미실은 하종과 화명을 결혼시키려고 하였다. 이미 한번 보리를 빼앗겼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성혼시키려고 하였다. 미실은 자신의 딸 애함을 보리와 혼인시키려 했지만, 당시 진평왕의 생모로 진골정통의 주인인 만호태후가 불허하였고, 만호는 진골정통의 인맥(姻脈)을 키우려 딸 만룡을 보리와 혼인시켰다. 결국 미실은 이번에도 만호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고, 게다가 숙명의 두 딸 화명과 옥명 모두 진평왕의 후궁으로 들어갔다. 장남 원광은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고 승려로 중국에서 불경을 연구하고 강연하면서 그 명성을 높였다. 신라로 돌아 온 후 '여래장경사기'와 '대방등여래장경소' 등을 저술하여 신라에 새로운 불교 지식을 전하였다. 또한 귀산과 추항에게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전한 윤리강령은 당시 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생활윤리인 세속오계가 되었다. 곧이어 세속오계는 화랑도들의 실천덕목이 되었고 후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크나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원광의 부모인 이화랑과 숙명공주 모두 김씨인데 삼국유사에는 그의 숙명이 박씨로 기록되어 있다. 차남 보리는 어릴때부터 '화랑놀이'를 좋아하였는데 결국 화랑의 수장인 풍월주의 위에까지 올라 수많은 정예 화랑들을 양성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어머니 숙명과 외숙모 미실의 사이에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들을 잘 화해시키는 수완을 발휘하기도 했다. 대원신통의 미실과 진골정통의 숙명은 인맥(姻脈)이 다르기에 대립할 수도 있었겠지만, 숙명은 무엇보다 미실을 제부(弟婦)로서 좋아하지 않았다. 화랑세기에는 보리가 미실을 위로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종에 이어 591년에 풍월주가 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공은 늘 (만호)태후궁에서 만룡을 업고 놀았다. 그러므로 길레가 끝나자 만룡이 공에게 업어줄 것을 청하자, 공이 기뻐하며 허락했다. 태후가 웃으며 "지난날 형매(兄妹)가 지금은 부처(夫妻)가 되었다. 처는 이와 같으면 안 된다" 했다. 숙명이 "부처이자 형매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했다. 마침내 보리공에게 처를 업고 만호태후를 뵈러 가도록 명했다. (보리)공과 더불어 (만룡)남주가 (만호태후)를 뵈러 업고 나아가니, 당시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보리)공의 손윗누이 화명(花明)은 ... 하종공과 더불어 좋아했다. 미실은 이미 (보리)공을 만룡에게 빼앗겼기에 ... 화명을 하종공의 적처로 삼으려 했는데, 만호가 들어주지 않고 모두 ... 받아드렸다. 미실이 좋아하지 않았다. 보리공이 좋은 말로 위로하기를 "비록 혼인을 하지 않았으나, 조카가 숙모를 어머니로 삼으니 주형(主兄)이 포형(胞兄)이 됩니다.175) 이러한 상태로 세월이 가면 어찌 또 혼인하는 날이 없겠습니까

?" 했다. 미실이 기뻐하고 마음을 풀며 말하기를 "너는 진정으로 나의 아들이다. 또 무슨 혼인을 하겠느냐?" 했다. 보리공은 양 통의 사이에서 이쪽저쪽을 능히 화해시켰다.176)

미실은 이에 하종공에게 풍월주의 지위를 전하도록 권했다. 보리공은 사양했으나 어쩔 수 없이 풍월주가 되었으니, 건복(建福) 8년 정월이었다. 서현랑을 부제로 삼았다. 서현랑은 아양공주의 아들인데 영특하고 통달한 기풍이 있어, 태상태후가 사랑했다.177]

175) 여기서 조카는 보리공 자신을, 숙모는 미실을, 주형은 하종을 가리키며, 하종이 실제로 포형은 아니지만 미실을 어머니로 삼으면 하종이 포형이 된다는 말이다.

176) 양 통이란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을 가리킨다. 보리의 어머니 숙명은 진골정통이었고 미실은 대원신통이었다. 자식들은 모두 어머니의 통을 잇는다.

177) 건복8년은 591년이며, 서현랑은 김유신의 아버지이고, 그의 부모는 김무력과 아양공주이다. 태상태후는 진흥왕비 사도를 가리킨다. 화랑도의 부제는 풍월주 다음 위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보딩 학교의 장점 (2)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둘째, 시기를 놓쳐 묘종을 밖에 두어 화상과 동상을 동시에 입게 하여 다시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점이다. 모 든것을 너무 일찍 시작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다고 줄것을 주지 않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하나 아이에게 자신이 생각 보다 일찍 무언가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씩 모든것에 적응을 시켜 다양한 질병에도 면역력이 생길때 놀이방이나 데이케어 센터에 보낼수 있게 하는것이 좋을 것이다. 당장 부모님들이 회사에 출근한다고 아이를 갑자기 케어 센터에 보내면 오히려 많은 질병을 얻어 올수 있는 확률이 높다. 충분한 영양분이 있는 흙에 조금은 큰 사이즈의 일회용 화분에 고추씨를 심어 모 든것이 튼튼하고 크게 잘자랄수 있게 해주는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

셋째, 화분의 묘종을 옮겨 심을때는 아침 보다는 그들이 진 날씨에 비가 오면 더욱 좋다. 다른 조건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 남아 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주변 요소들 예를 들면 강한 햇빛, 매마른 토양, 온도차등의 요소를 피하면서 저녁때 미리 땅을 파서 물을 준다음 묘종을 옮겨 심고 다시 묘종 위에 살짝 물을 주며 관리를 하면 다음날 아침 시들지 않은 모습의 묘종을 볼수가 있다. 그리고 매일 저녁때 쭈 며칠간 물을 주면 뿌리가 땅 속으로 정착 할때까지 관리를 해주면 홀로 설 수가 있다. 인간의 성장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형태이다.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공존 한다는 것은 아마도 자라서 성숙하는 과정이

유사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교육도 학년이 바뀔때 여름 방학(미국) 또는 겨울 방학(한국)이 있다. 이 기간은 다음 학년을 넘어가기 위한 휴식이기도 하지만 묘종을 땅에 옮겨 심는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와 새로운 도전적인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국 보딩 학교의 장점은 좋은 토양에 다양한 형태의 야채가 잘 자랄수 있게 만들어 주는 곳이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주니어 보딩에서 시니어 보딩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묘종이 비옥한 땅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심어지고 더 잘자라게 해주는 과정이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보딩을 보내면 여러가지 관리가 잘 될까? 그리고 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잘 해결 해낼까?등의 다양한 걱정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된다. 마치 고추 씨앗을 화분에 심어 씨앗이 싹으로 나올까 하는 걱정과 너무 동일 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 보다 자신의 아이를 부모가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니 아이를 믿고 실행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여름 방학때 마다 가능하다면 2-4주 정도의 보딩 서머 캠프를 보내 미국 보딩 생활에의 적응력을 보고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

보딩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독립심, 협동심, 배려심, 창의력, 그리고 리더십을 교육 받을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보딩 학교들의 장점을 나열 해보기로 하자.

1. 적은 클래스학생과 선생님 비율.

학교 마다 시스템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보딩 학교들은 대체적으로 클래스 사이즈가

12:1정도의 소수 정예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름을 기억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아카데미 능력을 정확히 파악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 스스로가 본인이 무엇이 부족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 하고 있어서 과목 선생님들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알수가 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묘종 보다 더 큰 간격과 더 많은 흙으로 묘종을 심으면 키도 크고 더 많은 열매가 열린다. 그이유는 충분한 햇빛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2. 도전적인 아카데미 프로그램 제공

물론 모든 보딩 학교가 다 우수하다고 말할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보딩 학교들은 우수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수가 있다. 물론 기본 과정 역시 충실하게 가질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학교들 마다 아카데미 특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과 잘 맞는 학교를 선택 한다면 학업 능력을 극대화 시킬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명문 보딩 학교들의 아카데미 과정은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1, 2년 수업을 따라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준이며 어떤 학교는 아이비리그 수준과 동일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도 있다. 대부분 명문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학점 받기는 어려웠는데 막상 대학에 가니 학교 수업이 쉽다고 말한다. 그만큼 어렵지만 대학 수업을 따라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준비를 시켜준다. 학생들이 특정 분야에 재능을 보이면 Independent study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선생님과

학생 둘이서 관심 분야의 리서치와 깊이있는 공부 진행도 가능하고 학교가 제공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인터넷 수업 또는 대학에서 수강 할수 있는 기회도 부여 해준다. 평균 학생들이 일주 동안 숙제 하는 시간은 보딩은 17시간 이상, 사립 데이는 9시간 이상, 그리고 공립은 8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된다. 그만큼 보딩 학교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업을 요구 한다.

TABS (The Association of Boarding Schools) 자료에 의하면 대학 진학을 위해 보딩 87%, 사립 데이 71%, 그리고 공립 출신 39%가 아카데미 관련 자신의 학교들이 준비를 아주 잘해 주었다고 응답했다.

3. 다양한 학생 구성과 다양한 친구를 만날수 있는 기회

보딩이 기숙 학교를 의미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지역 및 국적의 학생들이 신분에 상관 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청소년기에 누군가는 심한 사춘기를 겪고 혹은 컴퓨터와 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 등이 있다. 부모님들도 컨트롤이 잘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보딩 생활은 군대와는 다르지만 엄한 규칙을 준수하여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춘기는 자연스럽게 넘어 가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멀리 할수도 있다. 물론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때문에 클럽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자연 스럽게 멀리 할수 있는 장점도 있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사람들의 심리 질투

오늘은 조금 무거운 소재를 이야기하고 싶다.

어느 대학에서 원숭이를 이용해서 임상실험을 하고 있었다. 원숭이들에게 동전 하나씩을 나눠주고, 점심시간 때 동전을 가져오는 원숭이에게는 포도 한알씩을 주었다. 단시간에 원숭이들은 점심 때 포도의 디저트를 즐기 시작했다. 얼마후 실험의 방식을 조금 바꾸었다. A 원숭이에게는 평소와 같이 포도 한알을 주었는데, B원숭이에게는 3알을 주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면서 A 원숭이가 가우퐁 거렸는데, 이 모습이 반복되자, 당장 화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다음 날에는 A 원숭이는 동전교환으로 제공된 포도 한알을 연구원에게 집어 던져 버린 것이다. A 원숭이는 자신이 왜 B원숭이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지 이해할 수가 없기에 분통이 나는 것이다.

반면에 늑대의 세계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있다. 사냥하고 먹이를 먹는 순서, 암컷과 관계를 소유할 수 있는 순서는 알파 수컷이 우선이다. 알파 수컷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먹을 수도, 잘 수도, 같이 다닐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알파 수컷이 더 많은 먹이를 먹는다고 오메가(가장 약한) 늑대는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인간의 5대 죄악중에 하나인 ‘질투’ 는 한

가지 조건이 성립 되어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조건의 “동등하지 않은 상대” 이어야 한다. 즉, 나보다 강하고 우월한 알파 상대에게는 절대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 질투는 내가 생각할 때는 별것도 아닌 상대, 즉, 우순 상대에게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주관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쉽게 목격된다.

한국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는 일제 강점기, 임진왜란, 왜구침범 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에게 문화를 전해 받은 미개한 집단이었는데, 우리보다 강해진 현실에 ‘질투’ 가 첨가 된 것이다. 종종 일본의 문화가 백제에서 전해진 증거가 발견 되었다는 뉴스, 일본의 왕족도 한반도에서 갔다는 속설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면, 일본 또한 한국에 많은 질투를 갖고 있어서, 광개토태왕비에 일본이 벌써 그당시에 국가로 표현되었네, 아니네 말이 많다.

질투는 우리주변에서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많은 감정의 함정에 빠트리고 있다.

좋아하는 여인의 남친에 대한 질투, 부모에게 큰 유산과 자금을 지원받는 이웃에 대한 질투, 친구의 대박 주식투자에 대한 질투, 동창의 번창하는 사업에 대한 질투,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이웃사촌에 대한 질투, 본인도 30년 지기를 질투로 잃은 아픈 경험이 있다.

질투의 속박에서 해방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한 방법은 자신이 알파라고 믿는 사고를 격파하고, 자신은 베타 또는 오메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다른 알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 수 있다. 자신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갑부 부모를 만나서 그런 것이고, 크게 사업을 하는 것은 돈 많은 시택에서 사업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도 그 환경에서는 그런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알파가 아니기에 이런 상황인 것 뿐이다.

두번째 방법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힘들 수 있게지만, 솔로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를 등지고 반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서만 측정하고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 키운 토마토의 크기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아무리 이웃이 사과, 포도, 배를 키워서 동네 이웃들에게 돌려 맛을 보게 해도, 나는 나의 토마토가 제일 좋은 마음이다.

질투를 포함한 희노애락은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 겨울의 마지막 한파에 차 한잔 마시면서 가슴속의 호수에 종이배를 띄워 보려고 한다. 조

금이라도 물결이 강하면 종이배는 가라앉기 때문이다.

집도 마찬가지이다. 저 집은 얼마에 팔렸는데 왜 내집은 그가격을 받지 못하랴고 물으면 너무나 황당하다. 집이 마켓에 나오면 요즘같은 시대는 전 세계에서 리스팅을 볼수 있다. 왜 그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없을까? 집은 Identical 한게 없다. 사람과 똑같다. 부동산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

사람에 심리를 이해해야 이 일을 오래 할수 있다는걸 배웠다. 위에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오르고의 황실수설 1]

올댓보스톤 교육컨설턴트, orugo4u@gmail.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보내며

냄비 속에서 계란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익어간다. 나는 정확히 12분을 기다려 불을 끈다. 그는 딱 그렇게 익힌 계란 두 개로 하루를 시작했다. 노른자만 쪽 빼놓고, 아니, 내 정신 좀 봐. 오늘도 또 계란을 삶다.

지금 그는 없다. 거의 20년을, 정확히 18년 5개월을 함께 했지만 떠나는 건 한 순간이었다. 추리닝 차림에 달랑 가방 하나만 가지고, 마치 화장실을 다녀오듯, 혹은 편의점을 다녀오듯, 그는 그렇게 떠났다. 한번쯤 뒤돌아볼 법도 하건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미련 따위 일랑 눈곱만치도 없다는 듯, 어쩌면 저렇게 생하니 가벼워질 수가 있을까. 저렇게나 냉정한 면이 있었구나 싶었다. 배신감인 허탈감인지, 아니면 그냥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쿨~하게 보내주자, 질척 거리지 말고.

하지만 냄비에 물을 붓고, 계란을 넣고, 시간을 재는, 거의 매일 아침 되풀이되는 이 자동화된 절차들은 어쩌란 말인가. 먹어 줄 사람도 없는데, 습관의 힘이란 확실히 이성보다 강한가보다. 어쩔 건망증 때문인지도 모르지. 내 나이도 이제 적지는 않으니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음을 난들 왜 모르겠는가. 그러니 그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원망하고 싶지도 않다. 만남과 헤어짐은 언제나 짝으로 다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긴 시간이 끼어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만다. 그리고는 이 특별한 만남에는 절대로 헤어짐이 없으리라는 말도 안되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나는 자꾸만 심사가 뒤틀린다. 나쁜 놈. 떠날 거면 애초에 오지를 말던가. 돈을 벌어난 것도 아

니고, 설거지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 한마디를 살갑게 해주진 않았잖아. 그저 방에 틀어박혀서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차라리 잘됐지 뭐. 마침 잔소리하기도 지켜워지기 시작했었는데. 치약 쓰고 제발 뚜껑 좀 닫아라, 소변 튀지 않게 앉아서 용변봐라, 밥 먹고 그릇에 물 좀 부어라 ... 나 에겐 간절한 민원들이 그에겐 한낱 잔소리였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는 잔소리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민원들에서 해방되었다. 뭘 물어보면 그저 응, 아니, 외마디 소리만 통명스레 내뱉던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갑자기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빌어먹을 계란같으니라고.

나는 안다.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걸. 그런데도 시선은 자꾸만 현관을 향한다. 투명인간 같았던 그의 빈자리가 이렇게까지 쿨 줄이야. 불 꺼진 그의 방을 볼 때마다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치밀어 오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처럼, 감정을 억누를수록 또 다른 감정이 부풀어 오른다. 떠날 때만 하더라도 쿨~하게 보내주었는데. 이젠 뭐지? 쿨~한척 나 자신을 내가 속인 건가. 모르겠다.

모든 시작은 결국 끝을 향한 질주일 뿐이다. 하지만 끝이 왔을 때 우리는 미처 준비되지 않는다. 아무리 예고된 끝이었다 하더라도 도리가 없다. 하물며 20여년을 함께 했다면 말해 무엇하겠는가.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시작이 있을 때마다 다가올 종말의 상처를 경계해왔건만. 하지만 종말이 올 때마다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길들여지기는 어린왕자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참으로 버거운 일이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는 않았었는데. 짧은 투병 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별이었음에도 그때 나는 슬픈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없었다. 경황도 없었고 나이도 어렸으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그저 모든 것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을 뿐이다. 엄마의 빈자리를 느낀 건 한참이 흐르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였다.

이젠 그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지고 하루에도 열두 번씩 나는 자기최면을 건다. 돌아오겠단 싸구려 약속조차 그는 하지 않았다. 삼류 소설에선 흔하디흔한 그 알량한 거짓말조차 고지식한 그의 머릿속에는 들어설 공간이 없었던 것인지. 여자 마음 모르고는 예나 지금이나 참 일관성 있는 사람이다. 푸념을 한들 무슨 소용이람. 나도 이젠 내 길을 가야지. 어차피 삶은 혼자만의 고독한 선택과 후회로 이루어진 모노드라마인 걸. 계란 따위는 다시는 삶지 않으리라.

갑자기 기차 경적이 울린다. 부엌 창문으로 스쳐지나가는 통근열차가 오늘따라 낯설다. 저 기차는 알까. 자신이 신고 가는 누군가의 남자들, 또 누군가의 여자들이 얼마나 큰 헤어짐의 상처를 뒤에 남겼는지. 떠나는 자들이야 아무 생각도 없었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겨진 사람 생각할 건덕지가 눈곱만큼도 없을 테니까. 눈이 앞에만 달렸으니 앞만 보고 달리는 게 당연한지도 모르지. 남편 따라 미국 간다고 할머니를 남기고 떠났던 내가 아닌가. 엄마는 바로 그 해를 넘기지도 못하셨다. 내가 나쁜 년이다. 내가 남긴 상처는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내가 받은 상처만 아파하고 있다.

그를 떠나보내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18년 5개월 전 그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있을 걸.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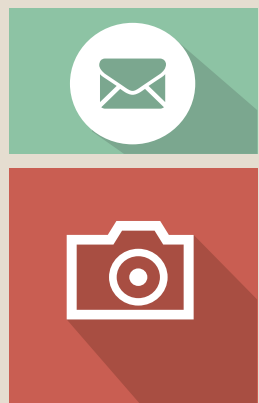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남쪽 성업 중인 세탁소 공장 + 셔츠기계, 연매상 \$200,000, 좋은 위치. 꾸준한 단골손님 확보, 소유자 은퇴, 건물 매매 가능 (단독 건물)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렉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셔츠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보스톤 남쪽 미국 식당(한인 셀러), 아침 + 점심 단독 건물 (많은 주차장), 6일 오픈 건물 + 식당 매매, \$3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셔츠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런드로멧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풀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KBS MBC SBS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1년 약정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